통일 이후 남북스포츠통합 방안

– 동서독 스포츠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

2019
통일기반구축 사업
결과보고서

2019. 04.
~ 2020. 02.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참 여 연 구 진】

책임연구원 나영일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원 권순용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김미숙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현 주 / 경기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선임급 연구원

보조연구원 노현웅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안배현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송윤규 /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3
3. 연구방법 ····· 3

Ⅱ. 독일통일 후 스포츠통합의 시사점 ····· 15

1. 독일 스포츠 통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남북스포츠통합을 위한 독일의 경험들 (Prof. Emer. Albrecht Hummel) ····· 15
2. '독일 스포츠 통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남북스포츠통합을 위한 독일의 경험들'에 대한 토론 (Prof. Udo Moenig) ····· 21
3. 동서독의 스포츠통합을 통한 정체성 회복 (Prof. Petra Tzschoppe) ····· 22
4. '동서독의 스포츠통합을 통한 정체성 회복'에 대한 토론 (전종덕 박사) ····· 31
5. 올림픽 교육을 통한 남북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통일된 정체성 구축 (Prof. Emer. Roland Naul) ····· 36
6. '올림픽 교육을 통한 남북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통일된 정체성 구축'에 대한 토론 (최의창 교수) ····· 44

Ⅲ. 독일통일에 비추어 본 남북스포츠통합의 향후 방향 ····· 47

1. 독일통일 경험으로 본 남북스포츠통합 방안 (나영일 교수) ····· 47
2. '독일통일 경험으로 본 남북스포츠통합 방안'에 대한 토론 (하웅용 교수) ···· 62
3. 한국 정부의 남북스포츠 교류정책 성과와 한계 (김미숙 책임연구위원) ····· 65
4. '한국 정부의 남북스포츠 교류정책 성과와 한계'에 대한 토론 (안지호 연구위원) 78
5. 독일통일 경험이 남북스포츠교류의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 (송형석 교수) 81
6. '독일통일 경험이 남북스포츠교류의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토론 (권순용 교수) ····· 101

Ⅳ. 결론 ····· 10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1939년~1945년)을 거치며 1949년 동서독으로 분단됐다.[1] 냉전 시기 이후 분단되어 있던 이들은 그간 통일에 대한 갈망에 힘입어 1989년 11월 9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1990년 10월 3일 마침내 통일을 이루어냈다. 한편, 1940년대 중반 독일과 비슷한 시기에 분단되었지만, 한반도는 38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나뉘어 여전히 통일되지 못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았다. 1945년 8월 15일 광복된 이래 우리나라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북쪽에서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1민족 2국가'가 지금껏 들어서 있는 것이다. 그 후 오늘날 한국과 조선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약 70년의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성격을 달리하며 발전했다. 이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 앞에 대립 구도를 세우며 '적(敵)'으로 서로를 내몰며 전쟁을 벌인 적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따금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 '조선민족'을 자처하며 한 핏줄임을 강조한 적도 있었다. 이런 이유 탓에 남북한 주민들은 언젠간 독일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간직하며, 통일의 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8년은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염원을 증폭시킨 한 해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여 남북한에 해빙무드가 조성된 것이다.[2]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현시점[3]에서 우리는 동서독이 통일했던 과정을

---

1) 독일은 1949년 5월 23일 잠정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공포하면서 독일연방공화국(BRD, 서독)이 수립됐고, 동년 10월 7일 소련 점령 지역도 독일민주공화국(DDR, 동독)이 수립됐다.

2) 나영일, 현주(2019).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스포츠교류 정책 방향.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7(3).

3)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주최한 '2019년 통일의식조사'에서 김범수 교수가 발제한 "통일에 대한 인식"에 따르면,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 대한민국 전국 7개 시도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26일까지 표본을 수집한 결과, "남한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61.8%,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중이 30.9%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살펴봐야 한다. 독일의 선례를 보아야 하는 이유는 과거 동서독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던 모습이 오늘날 남북한의 그것과 매우 흡사한 양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분단으로 인해 이질화된 국가 정체성을 좁히려는 노력으로 스포츠교류를 그 어떠한 교류보다 많이 한 점이 그러하다.[4] 이에 한반도 통일을 위한 예비 조사로 동서독의 통일 과정을 비교·관찰하는 작업은 매우 유의미한 작업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바로 남북한은 '통일(Unification)'뿐 아니라 '통합(Integration)'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5] 2015년 베를린인구·개발연구소(BIfBE)에서 발표한 '통일은 이렇게 진행중'(So geht Einheit)에서 통일 이후 동서독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큰 문제로 부각했다.[6] 이는 통일(統一)은 이루는 데 성공했지만, 통합(統合)을 일구는 데는 완성된 단계로 진입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짐작하건대, 그들이 '통합'의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는 사회통합을 별일 아닌 일로 생각해서이지 않나 싶다. 또한, 동서독이 거시적인 개념에서 통일된다면, 민족이나 문화, 생활은 금방이라도 화합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따라서 남북한은 동서독의 사례를 교훈 삼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통일 이후 일어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의 관점에서도 한반도 문제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한편, 1990년대 동서독에서는 통일의 분위기가 들끓던 때라 정권 역시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히 했다. 이후 그들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던 서독의 제도에 동독을 흡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Schroeder, 2010: 52). 그 결과, 정치, 경제, 법, 행정 등 제도적인 통합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수치는 2007년부터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전했다(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2019), 『2019년 통일의식조사,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 불안과 희망』).

4) 스포츠교류가 과거 동서독 및 한반도와 같은 분단된 양국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사실은 2018년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남북스포츠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참조하길 바란다.

5) 네이버 국어사전에 따르면, '통일'은 "여러 요소를 서로 갖거나 일치되게 맞춤"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통합'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으로 정의한다. 이를 유념해볼 때 '통합'은 '통일'보다 분명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단위로서 하나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스포츠통합'도 '미시적인 차원에서 남북스포츠의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음을 밝힌다.

6) "독일 통일 후 한 세대 흘러도 동·서 격차 '여전'". 연합뉴스, 2015년 7월 23일.

앞서 보았듯이, 동서독의 졸속 통합은 통일 이후 많은 문제를 양산했다. 이는 동서독 스포츠통합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를 들어, 통일 이전 스포츠 강국이던 동독은 엘리트 스포츠 부문에서 서독보다 훨씬 더 좋은 훈련 시스템과 지도자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통일 이후 서독의 스포츠조직이 동독 스포츠조직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동독의 우수한 체육인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이로 인해 국가에 필요한 인력이 해외로 이주 취업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7] 이러한 감안할 때, 통일 이전 동서독의 '스포츠통합'이 통일 이후 독일의 '스포츠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동서독의 스포츠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세부적이고도 합리적인 통합 방안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독일 스포츠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조명했다. 이는 통일 이후 남북한 스포츠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살펴보기 위함이며, 통합의 관점에서 남북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독일 스포츠학자들이 모여 본 과제를 논의했으며,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스포츠통합'의 길을 모색하며 '스포츠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스포츠학자가 동서독과 남북한 스포츠교류의 발자취를 비교·검토하였으며, 향후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여 독일 스포츠통합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 이후 한반도 상황에 적합한 남북스포츠통합 정책 방향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채택한 연구방법은 동서독 통일 및 스포츠통합 관련한 1차, 2차 문헌 자료 분석과 현지 방문을 통한 필드 조사였다. 더하여 2019년 11월 8일 「독일통일 경험으로 본 남북스포츠통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9

7) 2018년 서울대학교 통일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남북스포츠교류의 활성화 방안』, 49쪽.

GLOBAL SPORT SCIENCE CONFERENCE를 개최하여 한국과 독일의 스포츠학자를 초청해 스포츠통합의 문제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 도움을 준 13명의 스포츠학자 및 전문가를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2019 GLOBAL SPORTS SCIENCE CONFERENCE 초청학자 정보

연번	소속 및 직위	성명	사진	소개
1	서울대학교 / 교수	나영일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스포츠 역사・철학 전공) - 전) 한국체육사학회 회장 - 『북한의 체육과 여가』(2016,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2018~2019 통일평화연구원 사업 책임연구원
2	켐니츠 공과대학교 / 명예교수	알브레히트 훔멜		- 켐니츠공과대학교 명예교수 - 전) 켐니츠 공과대학 부학장 - 전) 독일 어린이・청소년 스포츠 학교 전환 연구원 - 전) 베를린 과학 교육 아카데미 연구원
3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책임연구위원	김미숙		- 독일 쾰른체육대학교 박사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평가위원 - 대한장애인체육회 전국체전위원 - 2019 통일평화연구원 사업 공동연구원
4	라이프치히대학교 / 교수	페트라 체홉		- 라이프치히대학교 스포츠 교수(사회학, 역사, 철학 전공) - 라이프치히대학교 여성 및 젠더 연구센터 이사 - 독일올림픽체육회 부회장 - 독일올림픽체육회 대중스포츠개발 대통령위원회 위원
5	계명대학교 / 교수	송형석		- 계명대학교 체육대학 태권도학과 교수 - 한국체육철학회 회장 - 독일 쾰른체육대학교 박사 - 『현대 독일스포츠철학의 흐름』 저자
6	뮌스터대학교 / 명예교수	롤란드 나울		- 뮌스터대학교 명예교수(올림픽 교육 전공) - 전) 유럽체육위원회 전문위원 - 전) IOC 교과서 검토위원 - 전)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초빙교수

7	한국체육대학교 / 교수	하웅용		-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교수 - 한국체육사학회 회장 - 「남북한 스포츠회담사」(2010, 한국체육사학회지), 「남북한 정치변동에 따른 스포츠경쟁체제의 변천」(2014, 한국체육사학회지) 등 다수의 남북스포츠통합 관련 연구 진행
8	영산대학교 / 교수	우도 뫼닉		- 영산대학교 태권도학부 태권도전공 교수 - 세계태권도연맹 위원회 위원 - 전) 독일 태권도 국가대표(B-Team) - 전) 독일 군인 태권도 대표
9	고양시정연구원 / 책임연구위원	안지호		-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 박사 - 고양시정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전문관
10	작가	전종덕		-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과 졸업 -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 저자 - 『독일통일-재통일인가 통합인가』, 저자 - 『슈뢰더 정부의 독일 개혁-한국의 정면교사인가 반면교사인가』, 저자
11	서울대학교 / 교수	권순용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스포츠사회학 전공) - 한국체육정책학회 부회장 - 한국스포츠사회학회 부회장 - 전) 한국체육학회 국제이사 - 2019 통일평화연구원 사업 공동연구원
12	서울대학교 / 교수	최의창		-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스포츠교육학 전공) -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회장 - 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학장 - 전) 세계스포츠교육학회 편집위원
13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사장	임현진		- 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창립소장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 국무총리 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 - 국회의장 자문 국회혁신자문위원회 -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남북 및 동서독 스포츠통합 관련 연구를 살펴보며 기존의 한계와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는 데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에서 본 연구과제와 유사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김경원, 2002[8]; 김미숙·송병록, 2013[9]; 김진우, 2002[10]; 송병록, 2004[11]; 송형석·안민석, 1999[12]; 유호근, 2011[13]; 이지훈·강래혁, 2015[14]; 이찬호, 2002[15]; 이학래, 2001[16]; 토마스 쿡크린스키 리, 하웅용, 2009[17]; 하웅용, 1998[18]).

앞선 연구에서는 평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스포츠가 제격임으로 독일 통일에 영향을 준 동서독 스포츠교류를 선례로 하여 남북 스포츠교류도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었다. 또 남북 스포츠교류는 역사적으로 한 번의 이벤트로 그치거나 지속성 없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왔기에, 동서독 간 스포츠 교류를 위해 맺은 법적인 조치들(1974년 5월 스포츠교류에 관한 독독스포츠의정서(Das deutsche-deusche sportprotokoll) 체결, 1986년 5월 스포츠 분야의 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문화협정 제10조 등)을 표방해 남북 역시 스포츠교류를 연속 가능케 하는 법적인 체계 조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8) 김경원(2002). 독일 통일에 따른 양독 스포츠 체제의 통합에 관한 연구: 엘리트스포츠를 중심으로. 한국체육사학회지, 14(3). 19-35.
9) 김미숙·송병록(2013). 통일 독일 전 동서독 스포츠교류사. 체육과학연구. 13(2). 109-128.
10) 김진우(2002). 동서독 스포츠교류와 법정책적 과제. 한국스포츠법학회, 3(-). 75-88.
11) 송병록(2004). 스포츠와 정치: 동서독 스포츠교류가 남북한 통합에 주는 함의. 한독사회과학논총, 14(-), 131-152.
12) 송형석·안민석(1999). 동서독 스포츠 교류가 독일 통일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 11(-), 79-97.
13) 유호근(2011). 스포츠교류의 국제정치 : 동서독의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정치연구. 4(2), 75-93.
14) 이지훈·강래혁(2015). 스포츠교류를 통한 남북한의 관계개선 방안연구 : 동서독과 남북한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전국체전기념 한국체육학회 학술발표회. 2015(-). 152-153.
15) 이찬호(2002). 동서독 스포츠교류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스포츠와 법. 3(-). 333-342.
16) 이학래(2001). 동・서독 체육교류 사례 및 시사점. 통일부 용역보고서. 통일부.
17) 토마스 쿡그린스키 리, 하웅용(2009). A Clash of Cultures : Tasks for the Integration of East and West German Sports Systems. 한국체육사학회지. 14(3). 19-35.
18) 하웅용(1998). Cultural and Historical Overview of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 동서독의 스포츠 회담. 88서울올림픽기념 국제스포츠과학학술대회. 1(-). 154-161.

한편,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한 가지 한계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일 전략에 맞춰 동서독 스포츠교류의 선례를 남북한에 대입하는 방안에 함몰된 나머지 통일된 이후에 양국 간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전혀 다른 이념 체계 안에서 이질적으로 발전한 남북한의 정체성을 이상적인 스포츠통합으로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비록 본 연구의 초점이 '스포츠를 통한 남북한의 하나 된 정체성 구축 방안'[19]은 아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 작업으로 '통일 이후 스포츠 체계 통합'에 방점을 두기에 선행연구를 보완하는 데 있어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은 동서독 스포츠학자 3명, 한국 스포츠학자 3명 외 토론자 6명이 진행했으며, 본 보고서의 Ⅱ장, Ⅲ장에 서술하였다.

한편, 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같은 쓰임새이지만 표현을 달리 한 용어가 있다. 바로 본 과제의 핵심어인 '남북체육'과 '남북스포츠'이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김미숙 책임연구위원은 정부 입장을 반영해 '남북체육'으로 용어를 사용했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남북스포츠'로 표기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는 관습적으로 명명된 '남북체육'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음을 밝힌다.

2) 현지 방문

본 연구진은 2019년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독일 현지에서 필드 조사를 실시했다. 현지 방문의 목적은, 첫째 국내에 있는 문헌만으로 본 과제 수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독일에 직접 방문해 동서독 스포츠통합 관련 자료 확보 및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2019년 11월 8일(금)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서 개최하는 『2019 GLOBAL SPORT SCIENCE CONFERENCE』에 '동서독 스포츠통합'을 전공한 독일 스포츠학자를 초청하고자 그들과 라포(Rapport) 형성을 위해 직접 만나고자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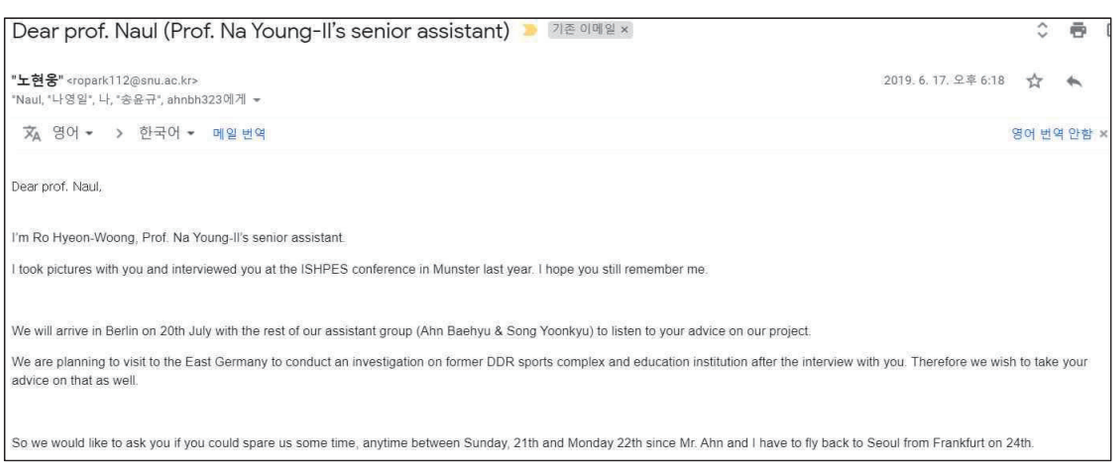
한편, 본 연구진은 여러 번 회의를 거쳐 독일에서 만날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여 독일에서 뮌스터대학교의 롤란드 나울 명예교수를 인터뷰하는 것으로

19) 본 연구진은 이에 관한 연구를 향후 추진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결정하였다. 이후 그와는 E-mail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본 연구진과 베를린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림 1. 출장 전 동서독 스포츠통합 관련 학자를 최종 결정을 위해 연구진 자체 회의 및 세계체육사학회장(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History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인 Annette Hofmann(뮌스터대학교)과 의논하는 모습

그러나 그와 사전에 약속한 인터뷰는 독일에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유는 연구진이 이미 독일로 떠났을 때, 나울 교수의 부인이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해, 그가 면담 일정 취소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독일에 도착해서 한국에서 계획한 일정을 변경하여 독일 통일 이후 스포츠통합 관련 중요 장소를 방문하는 등 오늘날 독일 사회의 스포츠체계가 어떠한 형태로 발전했는지 살펴보는 데 집중하였다.



Dear prof. Naul (Prof. Na Young-Il's senior assistant) 기존 이메일 ×

"노현웅" <ropark112@snu.ac.kr> 2019. 6. 17. 오후 6:18

*Naul, *나영일*, 나, *송윤규*, ahnbh323에게

영어 › 한국어 메일 번역 영어 번역 안함 ×

Dear prof. Naul,

I'm Ro Hyeon-Woong, Prof. Na Young-Il's senior assistant.

I took pictures with you and interviewed you at the ISHPES conference in Munster last year. I hope you still remember me.

We will arrive in Berlin on 20th July with the rest of our assistant group (Ahn Baehyu & Song Yoonkyu) to listen to your advice on our project.

We are planning to visit to the East Germany to conduct an investigation on former DDR sports complex and education institution after the interview with you. Therefore we wish to take your advice on that as well.

So we would like to ask you if you could spare us some time, anytime between Sunday, 21th and Monday 22th since Mr. Ahn and I have to fly back to Seoul from Frankfurt on 24th.

그림 2. 나울 교수와 독일 현지 미팅 일정을 조정하는 메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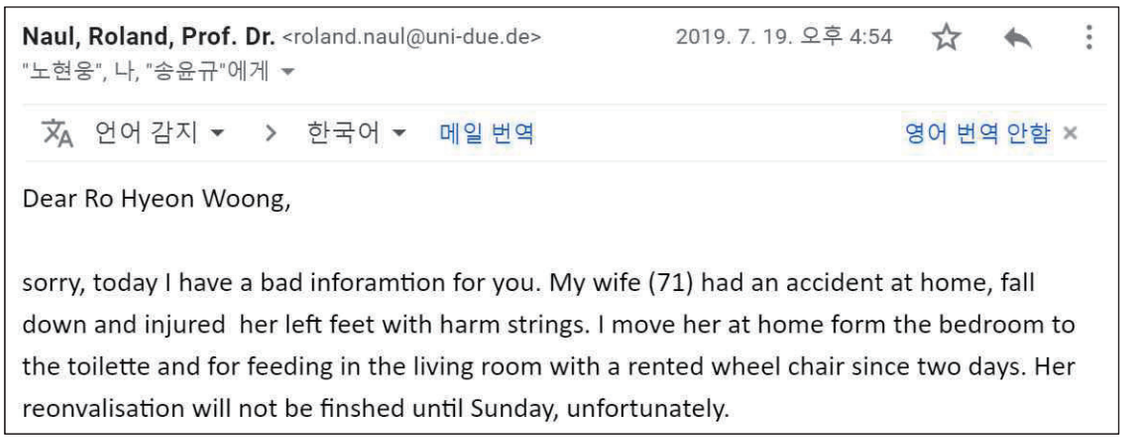


그림 3. 나울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미팅을 취소하는 메일 내용

참고로 <그림 2>와 <그림 3>은 본 연구진과 나울 교수가 독일 면담 일정을 위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내용과 그가 일정 취소를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메일 자료 첨부한 것이다.

본 연구진은 독일 통일을 상징하는 장소(냉전 시대를 상징하는 Checkpoint Charlie, 동·서 베를린 사람들의 왕래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해 한때 분단의 상징으로 여겨져 오던 Brandenburg Gate[20], 1961년 8월 동독 정부가 인민군을 통원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경계에 지었고, 1991년 11월 독일 통일의 상징이기도 한 Berlin Wall)과 동서독 스포츠통합 과정과 오늘날의 스포츠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독일 스포츠 & 올림픽박물관(Deutsches Sport & Olympia Museum[21])에 들려 유의미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자료조사를 위해 숙소 근처에 있는 서점과 도서관에 방문해 본 과업에 필요한 문헌을 살펴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리고 답사 현장에 있는 지역인에게 동서독 통일 관련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립 스포츠박물관에 방문해 스포츠 큐레이터와 동서독 스포츠통합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스포츠 박물관 관리 책임자인 Jan Lintzel[22]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56년 이

20) 브란덴부르크 문은 2009년 8월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첫날 열린 경보대회와 마지막 날 마라톤대회의 출발과 도착 지점으로 장식되었다. 당시 이 대회의 주 경기장이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스포츠행사에서 독일 통일를 기념하기 위해 대회의 시작과 끝을 브란덴부르크에서 진행한 것이다.

21) Deutsches Sport & Olympia Museum은 퀼른(Koln)에 위치하고 있다. https://www.sportmuseum.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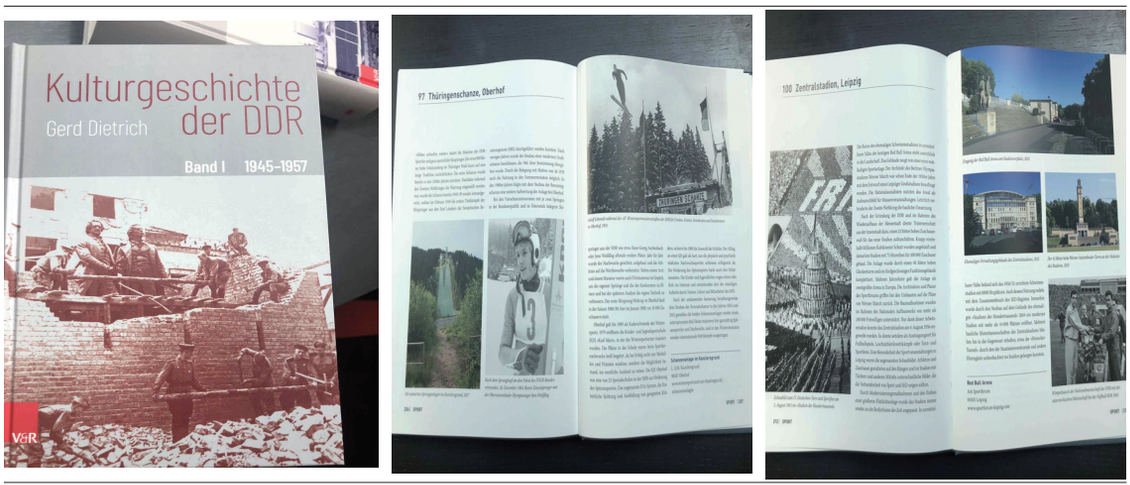
22) Jan Lintzel의 정보는 독일 스포츠 & 올림픽 박물관 공식 홈페이지 주소인

탈리아 코르티나 담베초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첫 동서독 단일팀이 출전한 것과 당시 행사에서 동서독 국가(國歌) 대신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를 사용한 것을 동서독 스포츠 관련한 대표 상징으로 언급했다. 이뿐만 아니라, 1956년 멜버른, 1960년 로마올림픽,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단일팀을 구성하며 매번 상위권에 올라, 하나 된 독일의 저력을 위시했다고 자부하였다. 그러면서 스포츠는 독일 통일에 분명한' 가교의 역할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팅을 취소한 나울 교수는 본 연구진이 11월에 주최할 국제학술대회 초청학자를 선정하는 데 동서독 스포츠통합 전문가인 훔멜 교수와 체홉 교수를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는 등, 이후 많은 도움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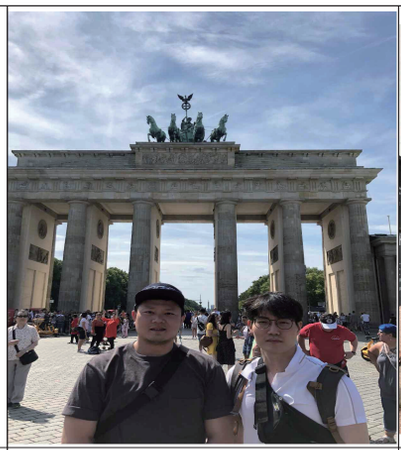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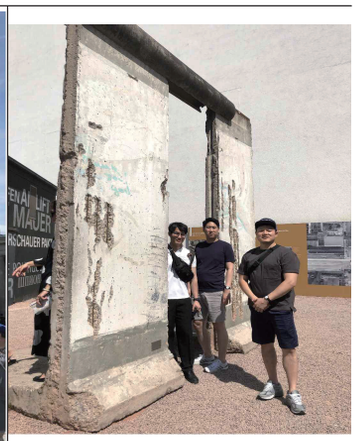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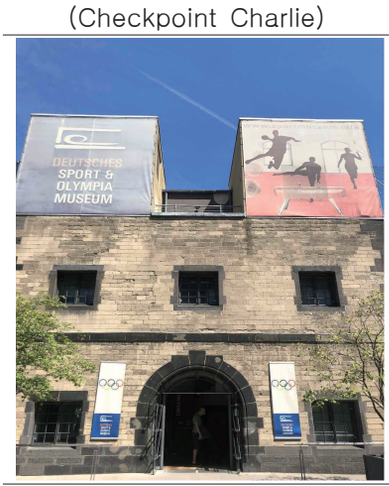
표 2. 2019 연구진 출장 활동 내용 보고

독일 답사 장소 및 활동 내용
* 참 석 자 : 연구보조원 3명(노현웅, 안배현, 송윤규) * 체류 기간 : 2019년 7월 20일~25일(5박 6일) * 활동 장소 : 베를린市, 쾰른市 등 * 활동 사항 : 1. 동서독스포츠 자료조사, 2. 독일통일 기념 장소 답사, 3. 독일스포츠박물관 방문



동독 스포츠 관련 독일 문헌 자료
(1972년 뮌헨올림픽 내용이 주로 서술되고 있었음)

(https://www.sportmuseum.de/ueber-uns/das-team/verwaltungsleitung.html)에 간략히 소개되어 있다.

<table>
<tr><td> </td><td>  </td><td>  </td></tr>
<tr><td>체크포인트 찰리 답사
(Checkpoint Charlie)</td><td>브란덴부르크 문 답사
(Brandenburg Gate)</td><td>베를린 장벽 답사
(Berlin Wall)</td></tr>
<tr><td>  </td><td> </td><td> </td></tr>
<tr><td colspan="3">독일 스포츠& 올림픽 국립박물관(Deutsches Sport & Olympia Museum) 방문</td></tr>
<tr><td>독일 스포츠 국립박물관 전경</td><td>1972년 뮌헨올림픽 당시
동서독 단일팀 선수단복 모습</td><td>박물관 큐레이터와의
인터뷰를 마치고</td></tr>
</table>

3) 국제학술대회 개최

2019년 11월 8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한테서 후원을 받아[23] 「독일 통일 경험으로 본 남북스포츠통합 방안」이라는 주제로 2019 GLOBAL SPORT SCIENCE CONFERENCE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초청학자 13명의 고견을 듣기 위해 동서독스포츠 및 남북스포츠에 관심 있는 대한체육회[24],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5], 남북체육교류협회[26]의 관계자 및 스포츠

23) 본 국제학술대회의 후원기관으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뿐 아니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스포츠과학연구소도 있다. 게다가 대한체육회 및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의 관계자들이 본 학술대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 공간을 빌려 협조해준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관련 대학원생, 학부생을 포함하여 약 150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다. 또한 한국어, 영어, 독일어 통역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당시 대회와 관련한 포스터와 초청장은 <그림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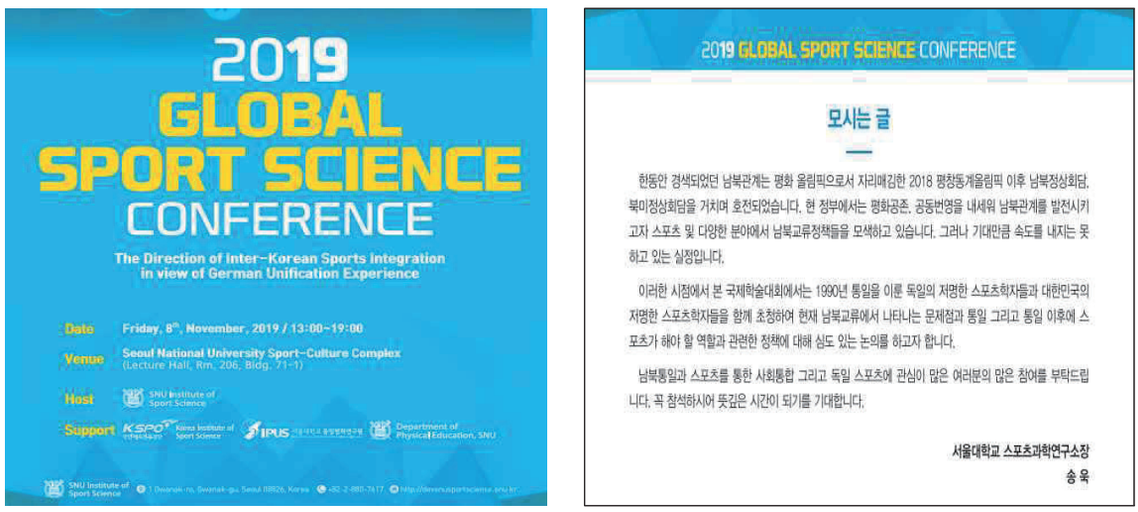


그림 4. 2019 GLOBAL SPORT SCIENCE CONFERENCE 포스터 및 초청장

초청학자 13명은 좌장 1명, 발표 6명, 토론 6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통일 이후 독일 스포츠통합에서 드러난 문제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 이후 스포츠통합에 나타날 문제를 진단해주었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학술대회의 모습은 <사진 1>, <사진 2>와 <그림 5>에서 살펴볼 수 있다.

24) 대한체육회(大韓體育會,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는 체육 운동의 범국민화 및 우수 선수 양성으로 국위 선양과 민족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20년 7월 13일 전신인 조선체육회로 설립되어 대한체육회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특수법인이며, 대한민국의 아마추어 스포츠 단체를 총괄, 지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www.sports.or.kr).

25)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은 1980년 개원이후 엘리트 스포츠의 경쟁력 강화, 생활체육 참가 및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국민 체력(휘트니스) 증진을 위한 측정 및 사업개발 등으로 국가 체육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시대의 요구인 스포츠산업 진흥을 선도하는 준정부기구이다(www.sports.re.kr).

26)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스포츠를 통합 남북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 단체로서 대표 업적으로는 북한 4.25체육단 지원, 남북교류 국제유소년축구대회인 아리스포츠컵 개최 등이 있다(www.http://snks.co.kr).

사진 1. 2019 GLOBAL SPORT SCIENCE CONFERENCE 모습

사진 2. 2019 GLOBAL SPORT SCIENCE CONFERENCE 모습

Time	Contents
13:00-13:30	Registration
13:30-13:35	Host : **Prof. Park, Jaebum** (SNU Institute of Sport Science) [Opening Address] • **Prof. Song, Wook** (Chair of SNU Institute of Sport Science) • **Dr. Chung, Young-lin**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3:35-15:15	**[Presentation #1] The plan of Inter-Korean Sports Integration in view of German Unification Experience** **Prof. Na, Young-I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entation #2]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German sport unification - Experiences for the inter-Korean sports integration?** **Prof. Emer. Albrecht Hummel** (Chemnitz University of Technology, Germany) **[Presentation #3] Performance and Limits of the Inter-Korean Sports Exchange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Dr. Kim, Mi Suk**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Presentation #4] Restoration of Identity through East-West German Sports Integration** **Prof. Petra Tzschoppe** (University of Leipzig, Germany)
15:15-15:30	Coffee Break
15:30-16:45	**[Presentation #5] Integration Policy for Immigrants through Sports in Germany: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as Means of Integration** **Prof. Song, Hyeong Seok** (KeiMyung University) **[Presentation #6] Olympic education: building up a unified identity of North and South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Prof. Emer. Roland Naul** (University of Münster, Germany)
16:45-17:55	Chairman: **Prof. Emer. Lim, Hyun-Chin** (Chairman of the board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Panel Discussion / Q&A]** • **Prof. Ha, Woong Yong**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 **Prof. Udo Moenig** (YoungSan University) • **Dr. Ahn, Ji Ho** (Senior researcher, GoYang Research Institute) • **Dr. Jeon, Jong Duek** (Writer, the unification of Germany etc.) • **Prof. Kwon, Sun Y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f. Choi, Eui 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17:55-18:00	Closing Declaration / Photo Tim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of Korean, German, and English

그림 5. 2019 GLOBAL SPORT SCIENCE CONFERENCE 행사 일정표

II. 독일통일 후 스포츠통합의 시사점

1. 독일 스포츠 통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남북스포츠통합을 위한 독일의 경험들

Prof. Emer. Albrecht Hummel(Chemnitz University of Technology)

1) 서론

필자는 얼마 전 베를린 올림픽 공원에서 하이킹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1936년 마라톤에서 올림픽 챔피언인 손기정 선수의 사진을 봤다. 그리고 그 사진 아래 실려 있는 설명글을 읽어 보며 한국 역사와 정치 발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 사실 손기정 관련 역사적 배경은 본인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용이었다. 한국과 독일의 발전 여건을 비교하려는 이번 시도는 이 그림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시작된다. 손기정은 '슬픈 영웅'의 모습이다.

(1) 비교방법의 가능성과 한계

비교역사정치학은 과학적 가치와 실용적 활용 면에서 여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비교방법에 대해선 지지자도 있고 회의론자도 있다. 이들 가운데 회의론자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며, 역사적 과정은 열려 있고, 항상 독특하여 비교가 안 되기에 근본적으로 비교를 통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럼에도 많은 연구자들은 '휴리스틱(heuristic)[27]적 충동' 탓에 구조적 유사

27) 완벽한 의사 결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결정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성을 찾고 사회 발전 과정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한다. 바로 기본적으로 내외부적 상황이 동등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비교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다. 한편,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국가 간의 화해, 협력, 통합, 통일을 비롯해 분립, 분열, 붕괴 사례를 제공한다. 역사적으로 국가 간 통합된 사례도 있고, 통합하지 못한 경우도 존재해왔다. 본 고에서 살펴볼 1990년대 독일 통일은 오늘날 비교적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2) 비교관찰대상(Tertium Comparatonis) 및 연구방법

연구대상으로 '동서독스포츠'와 '남북스포츠'이다. 이 둘을 비교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이유는 스포츠가 다양한 지역에서 각기 다른 특색을 갖추고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보편적 문화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스포츠는 법, 경제, 교육, 보건, 미디어 등과 연결되었기에 스포츠를 관찰하여 그 사회를 관망해볼 수 있는 특징도 있다. 비교 범위는 동서독과 남북한이다. 여기선 지정학적 영역뿐 아니라 정치적 영역 비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비교 기간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식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했다. 연구에서 채택한 이론으로는 시스템 이론, 현대화 이론, 개발 과제 이론, 증거 기반 이론 등을 사용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주의할 점은 동서독, 남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2) 본론

(1) 독일의 경우

동서독 분단은 2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무조건 항복, 얄타에서의 연합군의 회의, 포츠담에서 연합군의 회의는 동서독 분열을 결정지었다. 독일은 침략국의 위치였기에 제2차 세계대전 발발에 대한 주된 책임이 있었다. 이에 점령지 분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죄와 그곳에서 자행된 죗값이었다. 독일 두 국가(1949년: FRG와 GDR)의 등장은 당시 동서분쟁의 결

과였으며 이후 유럽의 냉전은 더욱 두드러졌다.

(2) 한국의 경우

남북한의 분단은 동서독과는 상황이 달랐다. 제2차 세계대전과 강대국(USA vs. Soviet Union / PR China) 간 갈등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어 38선을 사이에 놓고 남북이 분단됐다. 즉 한국은 침략을 일으킨 가해국 아니라 침략을 당한 피해국이었다. 이후 분단된 한반도에는 열강의 대리전(미국 vs 소련, 미국 vs 중국), 이념전쟁(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이 진행됐다. 참고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침략 당사국이었던 일본이 아니라 당시 일본의 식민국이었던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세계 정치사적 역설로 볼 수 있다.

(3) 유사점과 차이점

동서독과 남북한의 분단 과정에서 나타난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사점으로는 남북한과 동서독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라는 점과 강대국의 갈등, 이념전쟁의 이유 탓에 분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차이점을 설명하면, 분단된 이후 동서독 간 차이보다 남북한 간 차이가 훨씬 더 폭이 크다. 예컨대 전체주의적 성격, 국가주도의 사상통제(선전 조작, 세뇌), 법치주의 부족, 경제적 효율성, 외부세계로부터 고립의 정도, 현대 미디어의 사용과 그 밖의 다른 측면들은 GDR의 SED 독재 때보다 현재 북한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4) 독일 통일의 재건과 성찰 – 1990년

독일 통일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통일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통일 이후 동서독에서의 생활조건은 이미 많이 평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동독인구의 38%만이 독일 통일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2018년

기준).

이 같은 비판은 독일 통일이 합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실질적으로 시행된 방식에 반한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여기서 비판의 준거에는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제23조 흡수를 통한 통일의 절차에 있다. 1989~1990년 실제로 이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본법 146조를 이용하지 않게 된 이유는 정치적 시간 압박과 정치적 기회의 창 닫기(closing political time windows)에 대한 우려였다.

흡수 통일 절차에 대한 찬반 논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다. 헌법 '자유 결정'에 대한 논쟁(1990년)의 내용에서 얻는 이득은 아마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시작되었을 때 이러한 논쟁은 동독의 자존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90년부터 시작된 자기민주화 과정은 흡수의 결과로 끝났다.

시간적 압박에 의한 흡수 통일은 통일 후 독일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동독에선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반면에 서독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동독에서 일어난 무조건적 흡수 논리는 문화적 변화를 일으켰다. 동서독 흡수 통일 조약은 스포츠 시스템에서의 통합을 포함한 모든 사회 하위 시스템을 규제했다. 1990년 4월 H. H. Hansen DSB 사장은 독일 통일 기본법 23조, 즉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되면 동서독스포츠에서도 동등한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논평했다(Süddeutschhe Zeitung, 06.04.1990).

(5) 1990년 스포츠 체제 통합 - 흡수에 의한 독일 '스포츠 분야' 생산

얼핏 보면 스포츠는 독일 통일 과정의 '특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Sport Wonderland GDR의 성과는 너무나 눈부셨다. 당시 동독의 다른 분야에 비해 GDR 스포츠 시스템은 너무나 현대화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는 동독이 '스포츠'의 고유한 속성을 무시한 채 중앙집권적 조직 구조와 연결하여 스포츠를 정치적 도구화로 전락시킨 셈으로도 볼 수 있다. GDR(1990년)의 DTSB 조직은 1만 명 이상의 정규 직원과 훨씬 더 세세한 수준에서의 스포츠 커뮤니티 조직으로 갖춰져 있었다. 이처럼 탄탄하게 조직된 DTSB는 GDR 해

체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되어 1990년 12월 5일 해산이 완전히 이루어졌다. 한편, 정식으로 자격을 갖춘 동독국가체육연맹(LSB)의 기틀이 동시에 진행됐다. 1990년 12월 15일 하노버에서 열린 독일 연방 공화국 DSB의 본 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LSB의 독일 연방 공화국 DSB로의 흡수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공식 스포츠 분야는 LSB의 흡수에 의해 완성되었다. 또한 흡수 논리로 통합한 동독은 이후에 sports science(German federation of sport sciences; dvs), 학교 스포츠(federal KMK structures), 대학 스포츠 교사 훈련(federal KMK/HRK structures), 그리고 스포츠 교사 협회(DSLV)에서 회의를 열었다. 동서독 스포츠통합 이후 오늘날까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 모든 연령 그룹 및 전체 흡수 영역에서 DOSB의 LSB 스포츠 클럽에서 동독 인구의 조직도가 상당히 낮음
- 스포츠 협회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동독 사람들의 상대적 과소
- 스포츠 과학(교수직)에서 동독인의 상대적 과소
- 국제 참여와 함께 적절한 평가 없이 라이프치히의 독일 체육대학(DHfK)의 취급
- 학교 스포츠 관련 체육 단위(AKE)를 포함하여, 교육 기관(Academy of Pedagogonic Sciences, APW)의 미평가
- 독일 내 구조 미비로 다원적 학교 체육연구 중단; 스포츠 현대사에 대한 과학적 전문성 부족
- 동독인만 지원할 수 있는 도핑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방법
- 스포츠 경기 1부 리그 팀 구조적 부족

3) 결론

남북한 스포츠통합이 동서독의 경우처럼 “흡수통일 규제”에 따라 이루어지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동서독 스포츠통합을 반면교사 삼아 남북한 스포츠통합이 새로운 길을 분명히 열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남북한에 성공적인 스포츠통합을 준비하기 위한 전제조건 만들기는 북

한 쪽에서 부족할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에서의 정치적 붕괴, 평화혁명의 출현과 민주적 각성은 현재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게 필자가 판단컨대 동서독에서 일어난 흡수 논리로 남북한 스포츠통합에 적합한 실질적 모델 구축은 이해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더불어, 남북한 간의 사회, 경제, 헌법, 이념 조건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시간적 압박을 받는 흡수는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비합리적이며, 사회적 긴장만 고조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통일은 역사의 과정은 열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급격한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한반도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통일 이후 스포츠통합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과거 FRG는 1990년 동서독 통일에 대비해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스포츠는 다양한 사회 시스템의 평화 공존에 확실히 기여할 수 있음
- 스포츠는 감정적인 '문 개방자'로 국가문화 정체성 보존에 기여할 수 있음
- 남북 간의 규제된 스포츠 경기는 두 시스템 모두에서 스포츠 발전에 지속적 도움이 될 수 있음
- 올림픽·선발팀 합동 자격경기가 지원되어야 함
- 국제 스포츠 경기의 공동 조직을 모색해야 함
- 회의와 프로젝트를 통해 스포츠과학의 협력이 촉진되어야 함
- '1국, 2체제' 원칙의 기능을 면밀히 감시해야 함
- 단계별, 계약상 약정 및 화해를 통한 변경을 모색해야 함
- 항상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권고함. '위로부터의 통합'은 국민 간의 갈등만 야기
- 북한 주민들의 자부심, 존엄성, 자존심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남북통일을 위한 '장거리 행진'은 평화협력의 긴 단계를 통한 평화공존에서 평화통합을 통한 통일로 이어진다. 내 입장이 완전히 틀리고 그들의 내정에 너무 간섭했다면 이해와 면죄부를 부탁한다. 나는 그들이 그들의 통합 노력에 있어서 많은 힘과 성공을 기원한다.

2. ‘독일 스포츠 통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남북스포츠통합을 위한 독일의 경험들’에 대한 토론

Prof. Udo Moenig(영산대학교)

1) 독일과 한국의 분단에 관한 역사적 유사점과 차이점

Hummel이 지적했듯이 분단된 남북한과 동서독에는 역사, 정치, 지리, 문화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부분이 한반도 통일에 방해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 인민이 자유민주주의, 시민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나는 Hummel의 주장처럼 동서독보다 남북의 상황에서 차이점이 훨씬 많다는 것에 동의한다.

2) 분단국가의 스포츠와 통일 후의 스포츠통합의 목적

Hummel은 동독 스포츠 시스템이 대중적이지는 않았지만 엘리트 스포츠 분야에서는 매우 정교하다고 언급했다. 과거 동독은 엘리트 스포츠를 동독 인구가 적었던 당시(16 million) 공산주의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데 적합하여 강조했다. 이와 비슷하게 북한도 스포츠를 체제 선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들 사회에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스포츠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서독은 스포츠는 대중들에게 레저, 오락, 건강 차원에서 보급했다. 남한은 스포츠를 1990년대부터 발전한 경제 번영 이후에 서독의 경우처럼 간주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기에 Hummel은 동서독 스포츠 통합 후에 동독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Hummel은 독일 스포츠 통합의 모델을 한반도 통일 이후 바람직한 사례가 아니라고 설명한 것이다.

3) 논의의 쟁점

필자는 한국이 스포츠를 포함한 비교적 성공적인 통합을 이룬 독일을 들여다보고 논쟁을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동서독의 스포츠통합을 통한 정체성 회복

Prof. Petra Tzschoppe(University of Leipzig)

주제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는 라이프치히 출신입니다. 라이프치히는 1989년 가을 민주주의 기본권을 위해 거리로 나오는 용기를 보였던 도시입니다[28]. 라이프치히 시민들은 “자유인과 열린 국가”를 주장했고, 이 운동은 “평화로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며칠 전 10월 9일 라이프치히에서 우리는 그 당시의 염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물으며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89년 11월 9일, 장벽이 무너졌을 당시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독일이 통일할거라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은 서독 기본법의 범위에 합류하였습니다. 이 과정의 속도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뒤 한 달 간의 기쁨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연방이 보다 수월하게 함께 성장하는 것을 상상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무엇이 성공적이었으며 무엇이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예전보다 지금에서야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28) 1989년 9월 동독 정권을 무너뜨리고 동서독 통일의 첫 시발점이 된 비폭력 시위가 라이프치히에서 열렸다. 라이프치히 중심가에 위치한 루터교 니콜라이 교회에서 담임목사 크리스티안 퓌러의 주도로 열리고 있었던 기도회가 반정부 성격의 시위를 띠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동독 당국이 강경 진압을 하기 시작하자 10월 9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해 드레스덴, 카를 마르크스 슈타트, 동베를린 등 주요 도시에까지 번졌다. 이후 라이프치히에는 Heldenstadt(영웅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었다.

1) 평화혁명 이후 30년 간의 결과는?

정치인들과 대중은 동독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평등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법에 명시된 의무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 질문은 물질적, 가치론적 차원을 담고 있다. 물질적 차원에서는 고용 정도, 생산성, 임금, 연금뿐만 아니라 도로 건설, 건강보험, 교육, 여가 활동 등을 포함한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연구들에 따르면 생활환경을 조화시키는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 문제를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실증하고자 한다.

서언: 서독과 동독이라는 표현은 비교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지만 오늘날에는 오래된 연방과 새로운 연방에 관한 이야기로 표현되기도 한다.

동독의 경제력은 성장하고 있지만 서독과 비교했을 때 그 과정은 느리다 할 수 있다. 동독은 서독에 비해 생산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베를린을 포함한 신연방에서의 생산성은 서쪽에 비해 평균 82%정도 수준이다. 독일의 500대 기업 중 36개 기업만이 공화국 동쪽에 본부를 두고 있다. 기업의 크기와 함께 생산성이 증대하기 때문에 동독은 분명히 약점을 갖고 있다.

동-서독 간 임금의 차이는 통일 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상당하다. 같은 성별, 직업, 업무 경험을 가진 노동자의 경우에도 17%의 임금 차이가 존재한다. 게다가 동독의 노동자는 서독의 노동자에 비해 연간 평균 64시간을 더 근무한다. 2018년 동독 노동 시장에서의 실업률은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6.9%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수치 역시도 4.8%의 실업률을 기록한 서쪽에 비한다면 확실히 높다.

권력의 분배는 물질적 기회의 또 다른 주된 면이다. 고위 지도층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독과 서독의 운영진은 극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동독은 공화국 내 인구 비율은 17%임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직책 중 1.7%만이 동독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경영, 사법, 군, 학문, 경제, 스포츠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사회적 엘리트의 대표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대표자는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가치 관련 차원에서 현재 많은 동독인들은 자신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으며 통합된 사회에 안착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문제가 있다. 세 가지 핵심적 문제가 특히 동독에서의 불만족의 동기로 언급된다.

첫째, 충분히 인식되지 않는다는 느낌,
둘째, 문화와 정체성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셋째, 자신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현저한 하락과 사회구조적 체계의 조건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 과정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었을 동독의 성과도 언급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사회와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에도 영향을 미쳤다. 종합적인 국가보육제도는 아이를 낳고자 하는 욕구를 직장생활과 조화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은 여성들에게 노동시장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을 주었고, 따라서 경제적 독립성을 부여했다. 동독 여성 중 90% 이상이 완전 고용되었다.

동독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과 미래의 공동헌법에 대한 전(全)독일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통일 후에도 여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동독은 서독처럼 되었다. 따라서 동독의 주민들은 그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사이 동독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들을 국가 내에서 그들만의 인구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물질적 불평등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은 동독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구적으로 스스로를 2등 시민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 사회학자인 Steffen Mau는 동독이 collective violations에 근거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하위 사회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공통의 정체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체성을 정의한다.

정체성은 사회적 구조의 한 형태이다. 즉, 개인은 의미의 관계망 속에서 포착된다. 집단 정체성은 사회집단의 구성원들이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

는 무언가를 인지할 때 발생한다. 집단 정체성이 없는 현대 사회는 살아남을 수 없다. 결국, 정치 체제는 그들이 그것과 동일시 할 수 있을 때에만 시민들에 의해 받아들여질 것이다. 공유된 역사와 현재 경험 둘 다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

집단적 정체성의 한 가지 형태는 국가 정체성의 형성이다. 이것은 또한 국가의 국가(國歌), 국기(國旗)와 같은 상징적인 측면에서 표현된다.

특히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확실성의 시기에 국가와의 식별은 더우 중요해지고 있다. 동시에, 특히 독일 연방 공화국에는 자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한 긴장과 장벽이 있다. 국가 사회주의의 공포와 독일 분단의 공포는 국가 역사에 대한 접근을 특징짓는다.

2) 공통된 독일의 정체성인가 동독의 정체성인가

30년 전 라이프치히에서 시위대는 “우리가 국가다”라고 외친 후 나중에는 “우리는 하나의 국가이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동독과 서독의 국민들은 수십 년 간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다른 경험을 해왔다. 독일 분단 기간 동안 다른 특징, 다른 가치, 그리고 다른 코드들과 함께 두 가지 다른 문화가 등장하였다.

그 분열은 아직도 서독보다는 동독의 주민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동독 주민들의 핵심적 태도는 이방인으로서의 감정으로부터 나온다. 서독 주민들과는 달리 동독 주민들에게 출신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52%의 동독 주민들은 동독 출신이냐 서독출신이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분열 중 하나라고 확신하고 있다. 반면 서독에서는 26%만이 이 분열을 인식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전(全)독일적 정체성이 서독인들을 지배하는 반면, 거의 절반의 동독인들은 동독의 정체성만을 배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19년 추가 조사에 따르면 동독 출신의 57%가 자신들을 “2등 시민”이라 느끼고 있었다. 동독 출신 중 전체 40%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이 통일이 성공했다 여겼으며, 40대 이하 주민들 중에서는 20%만이 통일을 성공이라 여

기고 있었다. 여기에는 문화적 분석과 정체성에 대한 평가절하가 담겨있다. 동독인에 대한 시각은 종종 통일전후 시기의 고정관념에 의해 특정지어진다. “전형적인 동독인”은 서독의 표준으로부터 열등하게 이탈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동독과 동독인은 “eigene Andere”로 여겨진다.

한 연구는 동독인과 이주민의 유사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그 연구는 동독인이 무슬림 여성과 유사한 평가절하를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독인들은 그 두 그룹을 모두 스스로를 희생양으로 표현하려 하며, 현재의 독일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난한다. 이로써 많은 서독인들이 통일 과정에서 동독인들이 겪은 상처를 무시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그러나 서로가 눈높이를 맞추려면 “이질적임”에 대한 개방성과 호기심뿐만 아니라 양측의 세심함과 존중이 필요하다.

3) 스포츠를 통한 정체성 형성

스포츠는 사회적, 문화적 결합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스포츠는 국가의 자기만족과 국가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시적 이미지, 의미있는 사건, 그리고 식별 패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스포츠가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점이다.

국가를 인식하는 메커니즘은 특히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서 명확해진다. 관중은 자신들을 공통된 가치와 목표, 그리고 종종 팀의 성공에 기반을 둔 공동체라고 여긴다. 개인은 그들의 배경과 관계없이 공동체나 팬으로 통합된다. 이 기능은 반복된 기호와 “코드”를 통해 작동하며, “코드”는 자신의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관중이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스포츠의 정서는 또한 국가 정체성의 가장 적절한 수단이다. 스포츠 경기장처럼 열렬히 국가를 부르고 깃발을 흔드는 곳이 또 있을까?

스포츠는 경제, 문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사회의 여러 영역과 동시에 접촉한다. 이런 식으로 스포츠는 독일인과 독일 역사에서 정치적 사건들과 발전을 비추는 중요한 거울이 된다. 스포츠에서 동서독 간 차이와 소외는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났으나 그와 동시에 동서독은 통합되기도 하였다.

1974년 월드컵이 좋은 사례이다. 동독과 서독이 예선에서 맞붙었을 때 “우리 대 우리”라는 헤드라인은 독일 주요 타블로이드지를 장식했다. 이는 당시 두 독일의 국가대표팀이 맞붙은 첫 번째 경기이자 유일한 월드컵 경기였다. 이 경기는 영원히 기억에 새겨져 있는 것 같다. 함부르크 볼크스파크슈타디온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서독팀은 분명히 더 강했다. 그러나 동독은 위르겐 슈파바서의 골로 1:0 승리를 거두었고, 이는 축구 역사 상 가장 큰 센세이션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서독 팀에게 있어 그 패배는 유용한 충격이 되었다. 본선에서 그들은 결국 우승하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마라토너들은 분단되었던 도시의 통일을 2만5천여 명의 응원과 함께 그들의 방식으로 축하하였다.

또 다른 주요 행사 역시 국가적 정체성에 스포츠의 특별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2006 독일 월드컵의 개최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했다. 많은 독일 사람들에게 월드컵 개최는 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개방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경기를 유치하려는 몇 차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통일 직후 베를린은 “평화를 축하하고 동구권과 서구권의 차이를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 하계 올림픽 유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올림픽 유치 입후보에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있었고 베를린은 결국 대중이 지지를 얻지 못하여 올림픽 유치에 실패하고 말았다.

또 다른 시도는 대중의 지지가 매우 높았던 라이프치히의 2012년 올림픽과 패럴림픽경기대회 유치 시도였다. IOC의 보고서에 따르면, 90%가 이 유치를 지원했었다고 한다. 라이프치히 주민들에게 올림픽 유치는 평화혁명 이후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시도였을 것이다. 시민들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모였고, 지원서에 대한 신뢰 역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정치권과 기업의 지지가 너무 낮았다. 라이프치히의 올림픽 유치 신청은 “하나의 가족”이라는 슬로건 아래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는 국가 프로젝트로 만들어지지 못했다.

2018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경기대회는 훌륭한 예이다. 대회가 훌륭하게 꾸며진 것만이 성공적이라는 것이 아니었다. 독일 팀에게 평창올림픽은“팀 독일”이라는 공동 로고를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 이는 동기부여와

경기 성과, 팀 응집력, 그리고 수상대에 오르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경의를 표하는 특별한 올림픽 정신과 관련이 있다. 독일에서 “팀 독일”은 동서독에 관계없이 독일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사실이 스포츠가 아닌 다른 분야에 있는 통일의 문제점들을 가릴 수는 없다. 마지막 논점에서 이러한 측면 중 일부를 예로 들고자 한다.

4) 스포츠의 상황

스포츠 역시 통일 과정에서 주요한 변화를 겪었다. 대부분의 변화들은 사회의 다른 분야들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동서독 스포츠 통일은 조직적 수준에서 빠르게 수행되었으며, 내용적(실질적) 및 물질적(재정적) 측면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눈에 띈다. 그 문제는 동독의 독일체조스포츠연맹(DTSB)와 서독의 독일스포츠연맹(DSB)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당시 DSB에는 2,100만 명의 회원이 있었고, DTSB에는 380만 명의 회원이 있었다. 당시 DSB 회장이었던 한스 한센은 더 작은 조직을 흡수한다는 아이디어를 거부하였다. 그는 평화롭고 공정하며 섬세한 자세로 스포츠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결국 동독 스포츠 시스템은 기존의 서독 스포츠 시스템에 빠르게 통합되었다. 1990년 6월 28일 DTSB와 DSB는 합의에 도달하였다. 위원회는 1990년 6월 30일 가입 절차를 밟았으며, 그 결과 DTSB는 12월 5일에 해체되었다. 지역 스포츠연맹은 DSB 가입을 선언하였고, 동독의 스포츠연맹은 가능한 한 빨리 DSB에 합류하였다.

완전히 다른 두 스포츠 시스템이 독일 통일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통합되었던 것이다.

대중 스포츠에서의 과제는 동독 지역에서도 스포츠클럽 구조를 되살리는 것이었다. 또한 동독에서는 정기적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가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기업, 학교 및 대학 스포츠 커뮤니티의 조직적 구조에 들어있는 대규모의 경쟁 지향적 스포츠였다. 기업들과 관련된 기반구조들이 무너지면서 대중 스포츠의 재구조화는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날까지도 동독에는 서독 지역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이 조직에 가입되어 있다.

전체 인구에서 동쪽의 스포츠클럽 조직 수준은 현재 약 17% 수준이며, 느린 속도로 성장 중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두 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는 서쪽보다 분명 낮은 수준이다.

스포츠과학에서의 변화도 심각했다. 동독의 중앙 교육 및 연구 기관은 라이프치히에 있던 독일신체문화대학(Deutsche Hochschule für Körperkultur(DHfK))이었다. 동독 스포츠의 성공의 과학적 중심으로서 얻은 명성은 동독을 넘어서까지 이어졌다. 독일연방에서조차도 DHfK는 롤모델로 여겨졌다. 1990년 DHfK는 과학적, 직업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처리(abgewickelt)”되었다. 흔히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동독의 특정 기관들의 해체를 의미하였다.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국내외 수많은 스포츠 정치인과 스포츠 및 스포츠과학의 대표적 인물들 역시 이러한 성과 없는 해체에 저항하였다. 또한 이는 1,00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던 유명 스포츠 대학의 조직 단위는 90명의 직원으로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통일된 독일은 분명히 두 개의 스포츠 대학을 감당하기 원치 않았다. 그때부터 쾰른의 독일체육대학은 독일 유일의 스포츠 대학이 되었다. 라이프치히에서는 유명했던 대학이 라이프치히대학의 스포츠과학 교수가 되었다(라이프치히대학 통합).

게다가 옛 독일 연방과 달리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기관들에 의해서도 스포츠과학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 기관 중 가장 유명한 곳은 라이프치히 신체문화 스포츠 연구소(Leipziger Forschungsinstitut für Körperkultur und Sport (FKS))였다. 경쟁스포츠연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스포츠 협회들이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훈련계획, 성능 진단 및 장비 개발을 위한 획기적 연구 외에도 도핑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KS의 존속은 1990년 통일 조약으로 인해 규정되었다. 덧붙여 크레이샤(Kreischa)의 도핑 제어 연구소와 베를린에 있는 스포츠 장비 연구 개발원의 보존은 계약에 의해 확정되었다.

이는 스포츠가 독일 통일에서 특별한 사례라는 것을 보여준다. 1960년대부터 동독의 경쟁 스포츠는 서독의 경쟁스포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국제 무대

에서의 가시적 성공으로 보여주었다. 그 결과 “동독 스포츠 원더랜드”의 어떤 요소들이 과연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고려하게 되었다. 서독의 관점에서는 위의 세 기관만이 스포츠에서의 최고 기관이었다. 미래의 경쟁 스포츠에서 성공을 보장하고자 하는 노력은 명백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동독의 기능 스포츠 시스템에서의 다른 요소들 역시 보존해야 했었다. 이는 학교 교육과 스포츠 커리어를 결합할 수 있는 기회로서 1950년대부터 만들어진 청소년 스포츠 학교를 포함한다. 통일 이후 독일 경쟁 스포츠 시스템에서 어떠한 재능이 체계적으로 관찰되고 육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국가수준의 네트워크는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에 동독 최고의 스포츠 시스템이 갖춘 성공적 구조는 부분적으로 폐지되었고, 이후 변형되거나 유사한 형태로 다시 도입되었다.

또한 1990년 이후 동독 스포츠에 대한 관점은 도핑과 국가 안보와의 연관성에 대한 새로운 폭로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필수적 처리는 거의 구별되지 않았고, 주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분류로 축소되었다. 그 사이에 있는 다양한 다른 삶의 이야기들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독일 통일의 역사는 많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인이 다르듯 우리의 역사 역시 여러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 통일의 과정에서는 분명 우리가 만들어낸 심각한 정치적, 심리적, 경제적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눈높이에 맞는 진짜 통일을 빚어내기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역사로부터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적 발언으로 시작한 이 발제를 개인적 발언으로 마무리 하자면, 본인은 2018년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을 큰 행운으로 여긴다. 본인은 두 팀이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Korea”로 함께 입장하던 특별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것은 본인을 깊이 감동시켰다. 본인은 그들이 미래를 향한 문을 열고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4. ‘동서독의 스포츠통합을 통한 정체성 회복’에 대한 토론

전종덕 박사(『독일 통일-재통일인가 통합인가』 외 저자)

1) 서독과 동독의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과 체육정책

(1) 동-서독의 독일정책

① 분단

▪ 전승 4강국의 “전체로서의 독일과 베를린에 관한 최종결정권”유보를 전제한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창설

②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대외정책 및 독일정책

▪ 기본법(1949) 전문의 통일 명제: “전체 독일인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의해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달성할 사명을 가진다”

▪ 아데나워 정부

- 서독의 유일대표권 주장, 동일국적
- 독일정책: 1민족 1국가 체제로 통일 방식“힘의 우위 정책”(Politik der Stärke)

▪ 동서독 기본조약 체제

- 사민당 브란트 총리 정부 신동방정책, 신독일정책: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일련의 동방조약으로 현 국정유지 등 현상 인정과 동독의 실체 인정
- 동서독 기본조약: 사실상의 2 국가 체제. 동독과 서독의 관계는 국제법상으로 동독은 외국이지만 국내법상으로 외국이 아닌 특수관계

▪ 헬무트 콜(기민련) 정부

- 동서독기본조약 체제 인정하지만, 아데나워 체제 하에서 결정된 기민련의 독일정책 유지(1978 기민련 강령)

③ 독일민주공화국의 대외정책 및 독일정책

▪ 헌법

- 1949년 헌법: 동독은 “분할될 수 없는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단일국적을 명시하여 분단 부정.
- 1968년 헌법: 동독은 “독일민족의 사회주의 국가”

  1967년 동독 국적법 제정: 동독 국민 동독 국가 창설 이후 동독 주민. 2국가 지향
- 1974년 헌법: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 민족 삭제: 스탈린의 민족 개념에 입각한 사회주의 민족을 기초로 한 사실상 2민족 2국가로 전환

▪ 독일정책과 대외정책

- 1954년 소련-동독 기본조약 이후 국제법상 완전한 독립국가로 승인받기 위한 정책 추구
- 60년대 데탕트 기 2국가 체제를 지향: 1968년 헌법개정과 국적법 제정
-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과 유엔동시가입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 인정 받게 되고, 독일정책은 서독의 특수관계 논리에 대항하여 서독으로부터 국가 승인 확보가 최우선

④ 통일

▪ 기본조약 이후 사실상 2국가 체제 특히 독일민주공화국은 2민족 2국가 체제를 추구하면서 동서독 주민 각기 독자적 정체성

▪ 동독의 민주화 운동: 동독 주민은 여행권 등 기본적 인권이 보장된 사회주의 국가 지향. 서독 주민은 폴란드 등 동유럽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인식

▪ 1989년 11월 9일 장벽 붕괴 후 1개월이 지난 12월 13일 라이프치히에서 “Wir sind ein Volk”, “Deutschland, einig Vaterland!”라는 통일 구호 등

장. 서독 역시 11월 29일 콜 총리 10개항 통일방안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통일이 거론 됨.

- 1990년 8월 31일통일조약에서 동독 지역 신설 5개주와 베를린이 기본법 23조에 의한 독일연방공화국 편입. 사실상 서독 법률 적용. 의정서 I -11에 의해 동독 지역 공무원 채용에서 서독 기준 적용. 서독 지역 1972년의 과격파 공직채용 금지 유효

(2) 동서독의 체육정책과 동서독 간 교류

① 서독 체육정책

- 체육정책은 연방 주의 소관 사항. 독일체육연맹은 주의 체육연맹의 협의체로 비정치적.
- 아데나워 정부: 유일대표권 정책에서 체육교류 접근. 독자적 동독 팀 출전 봉쇄
  - 1960년대 동서 데탕트 분위기에서 사실상 실패
  - 1974년 월드컵에서 동서독 대표 팀 간의 경기는“90분 간의 계급전쟁”. 체제대결로 과장. 서독의 충격적 패배
-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이후
  - 기본조약 7조에 따라 1974년 동서독 스포츠의정서(Das deutsche-deutsche Sportprotokoll) 체결: 교류협력의 비용과 절차를 정한 의정서로 교류의 목적 등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음

② 동독의 체육정책

- 소련식의 중앙집권적 스포츠 조직과 정책: 통합도구로서 대중 체육
- 엘리트 체육과 국제교류
  - “체육복을 입은 외교관”: 국제 스포츠 교류는“세계적 차원에서”그리고 특히 “두 개의 독일 국가 간”“중요한 계급투쟁의 장”
  - 1948년 에리히 호네커의 독일 체육위원회 창립회의에서 선언: 체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

- 동독의 대외정책 및 독일정책과 관련하여 동독의 스포츠 교류는 동독 국제적 승인과 통일정책 주장을 위한 도구: 사회주의통일당, 국가(슈타지), 체육대학과 연구소 등의 밀접한 네트워크 올림픽 및 국제대회 독자적 동독팀 참가 추구(국가 연주, 국기 사용)

  1972년 뮌헨 올림픽: 동독의 독자팀 참가와 국기 게양 및 국가 연주. 동독의 성과

  동독 선수단 “서독 땅에서 서독 제국주의에게 경기에서 패배를 가져다 주기”(Den Gegner auf dessen eigenem Platz zu besiegen) 위하여 준비

2) 통일 후 스포츠 통합

- 흡수와 청산: 연방의회 통일조사보고서

“엘리트 스포츠에서 기술과 조직에서 명백하게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연방공화국의 스포츠와 비교는 거의 불가능하다. 핵심 구조에서 공약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의 근거는 이념적 적합성과 이를 정당화시키는 원칙 그리고 “동독 스포츠 정책에서 봉건주의적 지배계급의 파렴치함”에 있다. 통일독일이 동독의 핵심인 성공적인 성과를 활용하고 있지만 사회주의통일당의 스포츠 정책이 남긴 수십억의 부채를 청산하는데 수십 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관료와 스포츠 의학자들이 선수들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와 왜곡에 대한 거의 헤아릴 수 없는 부채는 앞으로도 남을 것이다. 스포츠 시설의 노후화 용인 외에 선수, 코치, 학자와 관리들의 국가보위부 그리고 당과 스포츠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지시한 약물투입과 조작 연루는 두 개의 상이한 스포츠 조직의 순조로운 통합에 최대의 부담이 되는 과거의 유산이다. 이에는 또 강요되었다는 무죄의식도 포함된다. 동독 엘리트 스포츠 구조는 조직적으로 밀접하게 네트워크화되어 있다. 이는 어린이 및 청소년 훈련센터에서 스포츠 클럽 서비스센터, 일관된 과학적 및 의학적 관리 결국은 약물 투입, 성적관리와 보안정책적 및 이념적 통제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화되어 있다. 계획의 목표는 4년 올림픽 주기에 맞추어 당 지도부가 설정하였다. “팀의 일원”인 당의 언

론을 통한 선전이 수반되었다. 정예 인력과 장비를 갖춘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이는 통일 후 대부분 붕괴되었다. 동독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선수들의 독일 통합 후 국제적 성과는 다음과 같은 수많은 괴로운 유산을 대하고 있다."

3) 남북한 체육교류

체육교류가 남북한 주민의 공동의 정체성 유지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북한의 체육정책과 시스템 자체가 과거 동독과 거의 유사

(1) 각종 문건

-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1977. 9. 5. 김일성)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9) 제55조
- 정치용어사전의 체육 정의
- 김정일의 엘리트 체육 강화 지시(1987)

(2) 남북한 간 체육교류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

1991년 남북한 상호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 기본합의서 체결, 유엔 동시 가입 등으로 양자 모두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순탄치는 못하나 현재 남북이 추구하고 있는 평화체제가 실질적인 2개 국가 체제로 발전한다면, 체육교류를 포함하여 민족이나 동질성 유지라는 문제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5. 올림픽 교육을 통한 남북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통일된 정체성 구축

Prof. Emer. Roland Naul(University of Munster)

1) 역사적 배경

이 글은 1970~80년대 사회주의 독일민주공화국(GDR, 동독)의 옛 학제(Drenkow & Marschner, 1972; Reichenbach & Schwidtmann, 1976)에서의 이른바 '올림픽 이상' 교육을 같은 20년 동안의 독일연방공화국(FRG, 서독) 학제에서의 '올림픽 교육'의 노력과 비교하여(Naul, 2007)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분명한 것은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와 같은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의 '올림픽 사상 교육'의 목적과 내용은 1990년대 12, 15세 학생들의 실증적 데이터도 보여주듯이,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다른 의도와 내용의 틀을 가지고 있었다(Telama et al., 2002).

동독과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전 사회주의 학교 시스템에서 올림픽 사상 교육은, 올림피즘의 교육적 목표인 전 범위에 적용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제한적이었고 국가 시스템의 정치적 노력으로 축소되어 시행되었다. 동독의 올림픽 사상과 연계된 지배적인 목표는 휴머니즘 정신, 국제 친선, 평화였다(Bäskau,1988).

소련의 '형제의 땅'에서는 국제 이해와 평화의 항목이 유럽의 구 공산권 국가들의 '세계 평화'와 '평화적 공존'이라는 정치적 이념과 더욱 강하게 연계되었다(Neverkovich,1988). '올림픽 교육'에 관한 이전의 동독과 서독 간의 양면성을 현대의 남북한 올림픽 교육 문제와 비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올림픽 교육'이란 용어는 1975년 서독의 저명한 올림픽 학자 노버트 뮐러가 올림픽 교육을 주제로 독일어로 첫 기사를 실으며 출범하였다(Müller,1975). 이는 서독 올림픽위원회(NOK=NOC)가 올림픽과 관련된 교육

문제에 대해 활발히 활동하게 된지(1966) 몇 년 이후였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1981년 바덴바덴 국제올림픽총회(IOC)에서 NOK 총재인 윌리 다우메가 올림픽 교육을 전담하는 국립올림픽 아카데미(NOA)의 일종으로서 정식 소위원회(Kurorpor Olympische Akademie und Olympische Erziehung)를 설립하자는 구상을 내놓으면서부터였다.

서독 학제에서의 올림픽 교육에 대한 정기적인 지원의 시작은 독일 NOC 소위원회가 각기 다른 학교 과목에서의 교육적 과제와 관련한 서울 올림픽의 주제 및 목적에 관한 최초의 소책자를 발간했던 1988 서울 올림픽 게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88년부터 해당 위원회가 2007년에 독일 국립 올림픽 아카데미로 전환하기 전까지 각 올림픽 대회마다 학교 자료가 제작되었다(Naul, 2007, pp.93-100). 이 자료들은 6세에서 12세 용으로 출판되었으며, 올림픽 교육 개념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는 고대 및 현대 올림픽 무브먼트의 역사, 독일 관련 사실 및 발견, 올림픽 무브먼트에 대한 기여, 그리고 올림픽을 개최한 각 국가 및 올림픽 도시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학문적 개념에 있어서 올림픽 교육의 진정한 약진은 체육 및 스포츠과학 고등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육, IOA 연구와 관련 서적출판 및 기타 교육 자료에 있어서의 교사들의 추가 교육이 소위 '스포츠에서의 독일 통일과 올림픽 무브먼트' 직후인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의 또 다른 하나는 1993년에 문을 열었지만 새로운 DOA가 설립되기 전인 2006년과 2007년에 이미 해체된 베를린 독일 올림픽 연구소(DOI)의 재설립이었다. DOI는 올림픽 교육을 포함한 올림픽 연구의 다양한 항목에 관한 세미나, 훈련 워크숍, 심포지아에 있어 NOC의 초점 역할을 했다. DOI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거의 매년 연구 항목에 대한 연감을 발간했다(Höfer, 2003). 동시에 서독의 체육 발전은 체육과 학교 스포츠를 가르치는 데 있어 스포츠를 통한 가치기반 교육 및 인격 형성의 목적으로 부분적으로 재형성되었다(cf. Krüger, 2003).

2) 통일독일의 올림픽 교육의 목적과 개념

1990년대 초반은 독일의 다양한 올림픽 교육 개념에 대한 학문적 논의의 진정한 시작을 환영했다. 1988 서울 올림픽으로 인해 1차 발표 이후 지속되었던 NOK 교육위원회의 학교 기반 출판물은 고대와 현대 올림픽을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지식지향적' 접근법 (Naul, 2008, pp.117)으로 발전되었으며, 독일의 공헌에 관한 날짜와 사실 등 국제 및 국가적인 흥미로운 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 교육용 브로셔의 개념에는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노버트 뮐러가 설명한 5대 올림픽 원칙에 대한 쿠베르탱의 철학이 정교해졌기 때문이다. 노버트 뮐러는 1988년과 1998년 사이에 이 NOK 교육 위원회의 의장직을 맡았다. 그가 퇴임했을 때 그의 관심은 쿠베르탱의 올림피즘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 스쿨 네트워크라는 정신으로 올림픽 교육에 관한 글로벌 학교 네트워크의 개발에 집중되었다. 뮐러는 피에르 드 쿠베르탱(2000)의 글 모음집을 최종 발간하면서 올림픽 무브먼트와 그것이 독일 내외의 교육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한 모든 연구에 있어 이정표를 남겼다.

이론적으로, 올림픽 교육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 네 가지 다른 접근법을 서술한 나울(2008)의 분석에 의해 올림픽 교육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었다. 그는 1990년대 이전 대부분의 올림픽 교육 시책의 전통적인 '지식 지향' 접근법 외에도, 세 가지 다른 접근법이 현재 토론을 지배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학교 축제 및 다른 다양한 경험들을 특징으로 하는 경험적 접근법, 운동 경기력을 강조하는 신체적 성취 접근법 그리고 가치 기반 활동에 대한 전체론적인 참여(holistic engagement)를 특징으로 하는 생활 지향적 접근법이다.

1990년대에 롤프 게스만(1992)은 신체적 성취 접근법을 강조하였고, 올림픽 교육을 체육 교육의 일부라고 기술하였다. 그의 접근방식은 올림픽 교육의 목표 및 목적을 위한 '퍼포먼스', '페어플레이' 및 '존중'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의 중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게스만의 올림픽 교육은 페어플레이와 상대편의 존중을 바탕으로 스포츠에서 최고의 개인 성적을 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한정된다. 상대편은 개인

이 운동과 경쟁에서 최고의 개인적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이다. 게스만에게 있어 개인 최고 기록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 없이는 어떠한 스포츠를 하든 올림픽 가치의 메시지와 무관한 것이다. 신체적 측면에서 가능한 한 개선하고자 하는 열망은 이 교육 목적의 기준이다. 왜냐하면 페어플레이와 행동에서 존중의 정신-사회적 가치는 영구적인 자기완성을 위한 노력의 맥락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게스만(2002)은 쿠베르탱의 올림픽 원칙과 옴모 그루페(1993, 1997)가 제안한 올림픽 교육의 개념을 쿠베르탱과 칼 디엠의 작품에 대한 언급으로 다루고 있다. 그루페는 게스만의 교수 목적 보다는 덜한 다섯 가지 과제를 올림픽 교육학의 목표로 삼았다. 대신, 그는 일반 스포츠 교육이 월장하기 위해 올림픽을 목표로 설정했다. 즉,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신체·의지·정신의 통일, 자기 완성을 위한 노력, 아마추어리즘의 이상, 공정성과 기사도와 같은 윤리적 규칙과 원칙에 대한 스포츠의 헌신, 그리고 평화를 위한 스포츠의 공헌이다. 세 번째 개념은 스포츠 훈련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신체 활동도 포함한다는 생각을 여섯 번째 원칙으로 추가한 노버트 뮐러(1998)에 의해 개발되었다. 혹자들은 이 여섯 번째 원칙은 훈련과 경쟁의 중요성을 낮추었다고 한다. 뮐러는 이후 피에르 드 쿠베르탱의 올림피즘의 원리(레이지오 육상경기, 평화사상, 유러피즘 원리 등)에 대한 명확한 역사적 언급으로 자신의 개념(2004, 2006)을 다시 만들었다. 이러한 개념들은 올림픽 교육의 구성 요소로서 문화간의 만남과 교류 그리고 아름다움의 차원과 같은 활동을 강조한다.

21세기의 전환과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올림픽 교육 계획을 체육과 스포츠 분야로 제한한다는 게스만의 개념은 NOK 위원회로부터 채택되었고 이후 국가올림픽위원회에 의해 모든 교재에 통합되었다(DOA, 2008; 2012).

올림픽 교육 발전과 관련된 새로운 조치는 2002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 독일의 NOC는 2012년 올림픽 유치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02년과 2003년에 5개의 잠재적 도시 중 도시를 선정하기 위한 전국 대회가 개최되었다. 함부르크, 뒤셀도르프-린-루르,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라이프치히. 전국 5개 시도 유치위원회는 모두 자신들이 희망하는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단지와 브로셔를 발간했다. 뒤셀도르프 르힌 루흐르 비드 북은 그들의

올림픽 문화 프로그램 요소를 "올림픽 교육에 관한 백서"로 개발했다 (Düsseldorf-Rhein-Ruhr, 2002). 이 책의 세 부분에는 올림픽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념, 유치원, 학교, 스포츠 클럽, 스포츠 협회, 고등 교육 기관 및 스포츠 기자 세미나를 포함한 공공 기관으로 예정된 다양한 올림픽 교육 행사 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는 또한 올림픽 교육을 가르치고 공부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자료에 대한 서지학도 포함되어 있다. 2003년 3월 라이프치히가 전국 입찰대회에서 우승한 후, 화이트북의 개요는 독일 도시 라이프치히의 국제 입찰 전략에 편입되었다. 2004년 라이프치히가 IOC 최종 유치 후보도시로 제외되면서 중단됐다. 그러나 백서의 초안은 두 가지 필수 요소로 독일의 새로운 올림픽 교육 개념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 첫째, 전통적인 역사 철학적인 차원으로 올림픽 운동에 대한 현대적인 지향으로 보완되었고, 둘째, 올림픽 교육을 가르치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된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른바 올림픽 교육의 통합개념은 각 영역의 역량으로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 목표의 명확한 구조를 가진 4개(신체적, 사회적, 도덕적, 인지적)의 올림픽 교육 영역(Naul, 2007, 2008)의 매트릭스로 더욱 발전되었다. 즉, 청소년 학생들을 위한 공적인 올림픽 교육과 어린이들을 위한 비공식적인 올림픽 학습으로 서로 다른 생활 환경에서 올림픽 학습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독일의 NOA의 새로운 교육 자료로 통합되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경기 브로셔에도 반영되었다(Naul, 2016).

올림픽 교육의 국제 수준과 더 나은 이해와 일부 비교를 명확히 하기 위한 도움으로, 올림픽 교육의 4대 개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식 기반 접근법은 고대 및 현대 올림픽 게임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관점을 학생들의 연령에 적합한 이름, 날짜 및 사실의 관점에서 전달한다. 올림픽 이념에 대한 지리적 질문과 단점은 올림픽 축하의 관련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올림픽 역사의 재현을 보완하고 완성한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NOA가 가장 선호하고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개념이다.

경험 중심의 접근법은 "페어 플레이" 캠페인을 포함한 국제 학교 협력의 (쿠베르탱 학교), 스포츠 데이, 게임 축제 및 청소년 캠프의 형태로 스포츠 및 문화 행사에서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모임을 촉진한다. 이 개념은 국제학

교 교류 프로젝트와 국제 피에르 드 쿠베르탱 학교 네트워크에 의해 적용된다.

모터 스킬 기반의 접근법은 개인 스포츠의 완벽함과 연관되어 있다. 스포츠의 완벽함은 상대와의 전투적 만남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가치 발전의 기초가 된다. 올림픽 가치의 사회적 잠재력은 개인의 완벽을 위한 공동 경기대회에서만 충족된다. 따라서, 교육학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경쟁자가 더 나은 신체적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둘 다 그들의 개인적인 완벽함에 대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여전히 학교에서 지배적인 접근법이며, 일부 독일과 다수의 동독 지역 및 전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행해진다.

라이프스타일 중심의 접근법은 올림픽의 원리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얻는 사회적 경험을 결합시킨다. 올림픽 이상은 이러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도덕적 행동의 사회화라는 전반적인 맥락에서 개인의 과제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된다. 이 접근방식은 디에나 바인더(2019년)에 의해 서로 다른 프로젝트에서 개발되었으며, 2007년에 글로벌 OVEP 프로젝트 1위를 차지하며 IOC에서 최종적으로 시행되었다.

올림픽 교육은 어떻게 남북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사이의 통일된 정체성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국 통일의 꿈은 한반도 밖의 국제 관중들인 스포츠 과학자들과 올림픽 교육자들에게 이미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준비의 시작으로 2002년 FIFA 월드컵과 같은 해에 부산 아시안 게임으로까지 연계되어 알려지기 시작했다(Jung Woo Lee, 2018). 하지만,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한반도 국기를 내걸고 개막식에 참가하는 한 단계 나은 결과가 이루어졌을 뿐,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까지 계속 유지되지 않았다. 1990년대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남북 스포츠 정책의 우여곡절이 있었다(Yu & Park, 2015). 하지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이 같이 청백색 반도 깃발 아래 동계 스포츠 선수단이 김정은의 동생과 치어리더들과 함께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고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또 한 번의 꿈을 실현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스포츠에 대한 찬반양론을 남북한 변화의 가능한 촉매로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학문적 연구와 토론의 시작을 위한 순간인 것 같다.

필자가 받은 질문: 올림픽 교육을 통해 남북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통일된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을까?

필자가 이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하기 전에 IOC의 추진에 의해 하나의 올림픽 팀으로 합쳐져야 했던 두 독일에 관하여 두 가지 항목을 언급할 것이다. 소련이 IOC의 올림픽에 처음 참가했을 때, 모든 동유럽 공산권 국가는 참가할 수 있었지만, GDR은 참가하지 않았다. 1952년 헬싱키에서는 서독만이 올림픽팀의 대표였다. IOC와 소련의 스포츠 외교관들 사이에는 GDR의 배제에 대해 심한 말다툼이 있었다. 소련은 만약 GDR이 다시 출전하지 못한다면 1956년 게임에 모든 동부권 국가들이 불참할 것이라 하였다. 1956년 첫 올림픽 보이콧에 직면한 IOC는 중립 깃발 아래 동서독 각자의 국가(國歌)를 제외하고 대표팀만 출전하라고 명령했다. 1956년, 1960년, 1964년 올림픽에서는 두 독일의 단합된 팀만이 현재 유럽 연합의 국가가 된 독일 올림픽 국기와 베토벤 9번 교향곡에 따라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동서독간의 경기를 통하여 동독과 서독에서 한 팀을 선발하였다. 1965년 IOC가 GDR 올림픽 위원회를 독립 국가 위원회로 선출했을 때, GDR은 그들의 국가(國歌)인 Becher와 함께 GDR 깃발 아래 실질적인 국가 대표팀으로서 처음으로 참가했다. 이 거래는 IOC에 의해 균형을 이루게 되면서 1년 후인 1966년 독일 연방 공화국이 뮌헨에서 열린 1972년 하계 올림픽을 유치하게 되는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1968년 멕시코 대회와 1988년 서울까지 두 독일의 냉전으로 인해 또다시 양국간의 스포츠 전쟁을 올림픽 무대에서 전개하였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필자의 논지: 가능하다, 올림픽 교육은 남북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통일된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은 공식적인 교류 회의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스포츠 이벤트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2010년부터 우리는 청소년올림픽이 개최되어 온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이 이후 호주에서는 청소년올림픽이 개최되었고, 첫 시작은 자크 로게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청소년 올림픽 축제를 개최했던 해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현재까지 하계와 동계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국제 청소년 올림픽처럼 2년마다 남북의 장소를 오고가며 '한국 청소년 올림픽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어떨까?

또 한 가지의 방법은 현재 도쿄 올림픽 교육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학교를 올림픽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을 개발하는 것이다.

일본 츠쿠바 대학의 올림픽 교육 및 연구 센터(CORE)에 의해 남북의 유명한 스포츠 학교와 일반 학교의 체육전공과들 간의 학교 교류 활동을 통해 서로 글로벌 네트워크의 파트너로 소개할 수도 있다.

아마도 남북한 젊은이들을 위한 스포츠와 교육에서 문화 간 교류에 대한 또 다른 세 번째나 네 번째 선택이 있을 것이다. 인간적 가치를 지닌 올림픽 교육은 올림픽 교육 도구를 통해 여러가지 개념과 방식으로 성취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공통되고 통일된 정체성을 달성하는데 더 적합하고 특정한 개념의 순위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 올림픽 회의의 첫 단계와 남북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공통된 스포츠와 교육 활동의 개발을 위해, 경험 중심 접근법과 모터 스킬 기반 접근법은 필자가 보았을 때 가장 잘 맞고 가치 있는 접근법처럼 보인다. 두 번째 단계에서, 올림픽 원칙과 남북한의 서로 다른 교육 및 스포츠 생활 사회화의 사회적 경험을 결합한 라이프스타일 중심 접근법은 나중에 진정한 올림피즘의 지식 기반 접근법을 가진 인지 패턴에 관해서 더 많은 문화 간 이해를 얻는 데 적합할 수 있다. 국제 올림픽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다가오는 도쿄 올림픽이 남북한 학교간 교류에도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

6. ‘올림픽 교육을 통한 남북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통일된 정체성 구축’에 대한 토론

최의창 교수(서울대학교)

필자는 나울 교수의 발표에 대해 논평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 나는 그의 2008년 저서로 그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가 영어판이 아닌 2016년 일본어판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그 주제에 대해 아는 유일한 책이었다. 나는 그를 직접 만나서 매우 기쁘고, 또한 그의 생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번 기회에 정말 감사하다.

나울 교수는 학교에서 독일 젊은이들의 통일된 정체성을 위한 독일 민주공화국(GDR)과 독일 연방 공화국(FRG) 사이의 노력을 연대순으로 설명했다. 올림픽 교육(OE)이라는 용어의 도입은 1975년이었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진정한 우려는 1981년에 시작되었다. OE의 정기적인 지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시작되었다. OE를 위한 진정한 돌파구는 "스포츠와 올림픽 운동의 독일 통일" 직후에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독일 올림픽 연구소는 1993년에 문을 열었다.

나울 교수는 OE의 가르침에 대해 독일에서 개발된 접근방식을 네 가지 범주로 개념화했다. 첫째, 지식 중심의 접근법은 올림픽의 역사와 독일의 공헌 사실을 강조하였다. 둘째, 경험적 접근은 학교 축제와 다른 다양한 경험을 강조했다. 셋째, 신체적 성취 접근은 운동 경기력에 초점을 맞췄다. 넷째, 생활지향적 접근방식은 가치 기반 활동에 대한 총체적 관여를 특징으로 했다.

그리고 나서 나울 교수는 국제적인 상황에 맞추기 위해 이 네 가지 접근법을 다듬고 이름을 바꾼다. 이러한 접근법은 지식 기반 접근법(KBA), 경험 중심 접근법(ECA), 모터 기술 기반 접근법(MBA), 라이프스타일 중심 접근법(LCA)으로 표현된다. KBA는 올림픽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사실적인 지식이다. 이것은 가장 인기 있고 인기 있는 개념이다. ECA는 스포츠와 문화 행사

에서의 청소년 단체들의 만남을 강조한다. MBA는 동부와 구 공산국가의 학교에서 스포츠의 완벽함과 지배적인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 LCA는 IOC가 2007년에 시행한 가장 최근의 개발이다.

그리고 나서, 나울 교수는 이 질문에 대답하고 남북 청소년들의 통일된 정체성 구축에 대한 OE의 가능성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제안한다. 먼저, 그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청소년 올림픽 경기와 전국 청소년 올림픽 경기(예: 호주 청소년 올림픽과 유럽 청소년 올림픽 축제)의 예를 확인한다. 둘째, 그 예를 바탕으로 "한국 올림픽 청소년 축제, 남북 축제 장소를 2년마다 바꾸자"고 제안한다. 셋째, 도쿄 OE 이니셔티브 중 하나를 빌려, 그는 올림픽 네트워크(Sport for Tomorrow)로 전 세계의 학교를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나울 교수는 개발 단계에 따라 각 접근방식의 전략적 구현을 권고한다.

통일된 독일에서 OE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다. 나울 교수가 요약한 네 가지 접근법은 가장 통찰력이 있었다. 짧은 기간 동안 OE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시도가 개발되고 실행되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특히 독일에서 말이다. 나는 나울 교수의 생각에서 재검토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단 한 가지 요점을 빼고는 없었다. 최근의 접근법이 모두 독일 통일 이후 개발되고 실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실무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치통일 이후에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제공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러나 분단국/통일국에서의 OE의 경험은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국 사건에 대한 통찰력을 갖기 위해 우리가 올려다보고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례는 독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단계별로 접근하자는 나울 교수의 최종 제안은 잘 구상되고 실용적이다. ECA와 MBA가 먼저, 그리고 LCA가 두 번째로, 스포츠 미팅은 먼저 신체적인 존재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만남이다. 그리고 KBA는 진정한 올림피즘의 이념적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가 될 것이다. 감정적인 교환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개념적인 이해가 더 용이해질 것이다.

정국이 통일된 이해에 부정적으로 변하면서 남북한 청년들의 통일된 정체

성의 가능성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24년 동계유스올림픽 통합, 2032년 하계올림픽을 제안했다. 이는 OE가 두 한국 젊은이들의 정체성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OE의 이상과 함께, 각 한국의 두 젊은이들은 서로 이해하고 남북통일에 있어 그들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기 전후의 여러 축제와 활동은 각각의 젊은이들이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서로를 더욱 심포지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OE 운영 경험이 없다. 우리 두 한국 젊은이들이 가까운 미래에 좀더 친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노력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 두 젊은이의 단합된 정체성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학문적인 관점이나 실제적인 관점 모두에서 OE의 주제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나울 교수의 시기 적절한 발표는 대학 학자들과 정책 관리자들의 통일된 노력을 추구하는데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나울 교수의 존재와 연설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독일 OE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남북한 젊은이들을 위해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한다.

Ⅲ. 독일통일에 비추어 본 남북스포츠통합의 향후 방향

1. 독일통일 경험으로 본 남북 스포츠통합 방안

나영일 교수(서울대학교)

1) 서론

필자는 통일평화연구원의 지원으로 『북한의 체육과 여가』(2016)라는 책을 집필하였고, 2018년에는 「남북스포츠교류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7월에 독일에서 Roland Naul 교수를 비롯한 몇몇 독일학자들을 만나 평창동계올림픽이후 남북스포츠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서 10월에 서울시체육회와 콘라드아데나워재단의 후원으로 열린 국제심포지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후, 남북스포츠교류」란 주제로 독일의 Manfred Laemmer교수와 함께 발표한 바 있다. 당시 Rolnad Naul 교수와 인터뷰 중에 심포지움을 열어서 한국과 독일의 상황을 비교하는 연구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용기를 내게 되었다. 이에 「독일통일 경험으로 본 남북스포츠통합 방안」이란 주제의 학술대회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2017 WT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석차 한국을 찾은 장웅 북한 IOC 위원이 "정치가 스포츠 위에 있다"[29]며 스포츠 분야의 남북 교류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나 독일통일은 정치적 산물이지 스포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송형석 교수의 지적[30]은 맞는 말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독일통일에서 남북통일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독일통일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29) 北 장웅 IOC 위원 "정치가 스포츠 위에…역사에 남을 뿐, 통일로 이어지지 않아" 중앙일보, 2017. 6. 27.

30) 이번 세미나 발표자인 송형석 교수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였다.

기준점으로 중요한 연구대상이며 반드시 알아야할 검토대상이기 때문이다.

남북스포츠교류협력은 정치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상호불신과 적대감과 같은 정서적,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러나 남북스포츠교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종속변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남북스포츠교류가 통일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순수한 생각을 버릴 수는 없다.

본고는 독일의 사례로 본 남북스포츠교류의 협력방안을 이야기한 것이다. 오늘 발표하는 연사들과 토론자들은 독일통일 당시에 동독과 서독에서 각각 스포츠분야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분들과 독일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 그리고 독일통일과 남북통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다. 통일 전까지 올림픽 등에서 최고의 기량을 가졌던 동독이 있었음에도 통일이후에 경기력[31]이 쇠퇴한 이유는 무엇인지, 엘리트스포츠, 생활스포츠, 학교스포츠의 상황은 어떠한지, 동서독인들은 통일이후에 어떤 불만과 문제가 있는지, 아직도 남북통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의 의견을 모아 가장 합리적인 남북 스포츠통합 방안을 만들어나가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2) 독일통일과정의 교훈

많은 학자들은 남북통일의 모델을 독일통일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왔다[32]. 특히 독일사연구자들은 분단 한국의 현실에서 독일통일은 중대한 '실천적' 연구과제로 간주하여, 1990년 통일까지의 독일정책과 평화정치, 다른 하나는 통일 후 독일 사회와 '유럽적 독일'의 향방으로 관심을 확대하였다[33]. 통일에

31)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동독은 102개의 메달로 132개의 소련에 이어 2위를 하였고, 서독은 40개로 5위를 하였다. 그러나 1992 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는 통합독일이 82개로 3위, 1996년 애틀랜타올림픽에서 65개로 3위, 2000년 시드니올림픽 56개로 5위,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50개로 6위,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51개로 5위,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44개로 6위,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42개로 5위를 하였다.

32) 2019년 9월 10일 현재, '독일통일'이란 키워드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찾으면 학위논문만 2,280건, 국내학술지만 3,441건이 검색된다. http://www.riss.kr/index.do

따른 경제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주의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책임문제 등은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이기에 독일통일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독일통일이 남북통일의 모델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34].

이채진(2019)은 역사적 사례로 보아 통일의 방법과 가능성은 4가지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합의에 의한 통일(라오스) (10%), 전쟁을 통한 통일(월남) (20%), 흡수에 의한 통일(독일) (30%), 평화공존, 기능주의통일(중국과 대만) (40%)을 들었고, 한국의 미래의 통일 모델을 현 시점에서 중국과 대만 방식을 40% 확률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35]. 그리고 독일통일의 원인으로는 1) 경제적 격차증가, 2) 서독의 문화전파, 3) 동독에서의 시민사회 형성, 4) Gorbachev의 개방정책 - 독일은 독일이 알아서 하라, 5) 동서독의 포용정신 등을 들었다.

전종덕(2019)은 독일통일은 '재통일인가 통합인가?' 라고 물으며, 독일민족의 형성부터, 분단과 양국체제 그리고 통일까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독일의 국내 통합은 한 세대를 넘긴 지금에 와서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36].

권오현(2006)은 물질적인 '통일'과 정신적인 '통합'을 함께 이루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은 독일의 사례를 관찰하여, 독일 통일은 사회문화적 통합의 미비함이 '통일 속의 분열'을 초래하고 이것이 통일 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37]. 그리고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 속에서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두 체제를 외형적으로 합하는 작업과 더불어, 구성원 사이에 동질성을 공유하는 '내적 통일'에 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33) 이동기, 「독일모델' 배우기의 너머」 『역사학보』 제235집, 2017:307-328.

34) 한스울리히자이트, 「독일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 전망 : 한반도 통일 "독일 아닌 다른 모델 찾아라"」『통일한국』, 316권 2010: 25-26. 독일대사였던 그는 독일통일과정을 보면서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를 편입하는 과정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하고, 대만의 예에서 대안을 찾을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피터람자우어 , 라이너게퍼트 , 프리드리히하러 , 디트마르베르거 등도 통독이후에 경제, 군사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고, 공무원교육과 개개인의 책임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을 설파하였다. 평화문제연구소, 『통일한국』 108권, 1992: 74-77.

35) 이채진, 「한반도의 통일은 가능한가?」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2019. 10. 9.

36) 전종덕, 『독일통일-재통일인가 통합인가?』, 백산서당, 2019: 284.

37) 권오현, 「독일 통일 후 동독지역의 교육통합 연구」, 『독일어문학』 32권, 한국독일어문학회, 2006: 271-272.

허태회(2016)는 “남북관계는 한반도 정치 상황과 주변 환경에 남과 북이 나름대로 반응하면서 겼었던 갈등의 역사이자 지난한 적응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최근 남북관계 패턴은 지난 70년 동안 남과 북이 강대국 간의 이념 분쟁을 자신들에게 내면화시켰던 적대적인 냉전 구조를 종식시키고 적응과 수용의 단계를 넘어 제도화 단계로 나아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 같은 군사 모험주의는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의 교류와 협상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남북통일에는 이러한 국가들과의 역학관계 등 여러 변수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38]. 이처럼 독일통일은 한국통일의 모델은 아닐지라도, 하나의 기준점으로 중요한 연구대상이며 반드시 알아야할 검토대상이다. 그런 점에서 남북스포츠통합에서도 독일통일의 과정을 검토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과정이다.

김경원(2002)은 통일전 서독 스포츠관리시스템의 기본 이념들인 무급 자원봉사의 원칙, 연방주의, 공공성 및 보조의 원칙 등이 동독에 그대로 수용됨으로써 동독 전문인력의 사장, 과학적 지원체계의 붕괴, 사회 각 분야간의 유기체적 협력관계의 붕괴 등으로 독일의 경기력이 쇠퇴하였다고 진단하였다[39]. 그리고 박세원 등(2019)은 동서독 체육교육통합의 문제점[40]으로, 첫째, 동독 체육교육의 장점을 흡수하지 못 했다는 점, 둘째, 통일 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였다는 점, 셋째, 통일 전 동독의 체육 관련 인적 인프라 활용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 동서독과 남북한의 차이

(1) 분단과정의 차이

독일분단과정과 남북분단과정은 큰 차이가 있다. 남북한은 동서독에 비해

38) 허태회, 『해방 이후 남북관계 70년 갈등, 화해 그리고 적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6: 75-77. 204.

39) 김경원, 「독일 통일에 따른 양독 스포츠 체제의 통합에 관한 연구: 엘리트스포츠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13권2호, 2002:109-128.

40) 박세원, 김상목, 김영식, 「통일 전후의 독일 체육교육과정 비교를 통한 체육교육통합의 시사점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14호, 2019: 19-41.

훨씬 격화되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다. 남북은 3년간 한국전쟁을 했고, 전쟁의 참화는 엄청났다[41]. 양측을 합하여 250만 명이 사망하였고, 80%의 산업시설과 공공시설과 교통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정부 건물의 4분의 3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고, 가옥의 절반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42].

또한 인구수[43]와 경제적 여건[44] 역시 독일과 비교하면 독일과 남북은 차이가 크다. 통일 당시 서독의 인구가 동독 인구의 4배, 서독 GNP가 동독의 11배였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남북의 경제적 능력의 격차가 통일 당시 동서독의 그것보다 훨씬 큼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북인구수의 격차는 통일 당시 동서독보다 작다.

독일통일이 20년이 지났을 때, 통일독일의 동독 지역 GDP는 서독 지역의 70%수준에 머물러 있었다[45]. 25년이 지난 2015년 자료에 의하면, 동독 지역(베를린 제외)의 1인당 GDP는 통일 이후 연평균 5.5%로 증가하면서 구서독 대비 약 67% 수준으로 높아졌다[46]고 한다. 남북통일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은 통일비용[47]을 이야기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남북스포츠교류

4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통계로 본 6·25전쟁』, 2014: 30, 449, 457. 한국군과 유엔군의 인명피해는 772,608명이고, 북한군은 801,000명이며, 중공군의 피해는 972,600명이라고 한다.

42)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한국전쟁, 2019년 9월 10일자. 미국측 통계에 의하면 60만 명이 사망하였고, 전체 참전국의 사망자를 모두 합하면 200만 명이나 되었다. 한국의 사망자는 백만 명이 넘으며 그중 85%는 민간인이었다. 소련의 통계에 의하면, 북한의 11.1%의 인구가 전쟁을 통하여 113만 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43) 박성조, 양성철, 「남북한 통일정책에 주는 시사점; 제8장 본질적인 차원의 독일과 한반도 비교」,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1991: 149-175. 1946년 서독은 4,400만명, 동독은 1,700만명이었다가 1990년 통일시에 서독은 6,100만명, 동독은 1,600만명이었다. 김두섭, 「한반도(韓半島)의 인구변천(人口變遷) 1910~1990: 남북한(南北韓)의 비교(比較)」, 『통일문제연구』 5권4호, 1993: 202-235. 비교가 가능한 수치상으로 1947년에 남한은 1,900만명, 북한은 800만명이었고, 1990년에 각각 4,400만명과 2,140만명이었다. 2019년 현재 남한은 51,709만명이고, 북한은 25,250만명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있다.

44) 북한정보포털, https://nkinfo.unikorea.go.kr/nkp/openapi/NKStats.do, 2019년 9월 10일 검색. 1991년 서독은 1,362억유로, 동독은 106억유로로 13배정도의 경제적 격차가 있었다. 이에 반해 북한은 국내총생산(GDP)은 1990년에 165.9억불에서 2019년에는 84.1억불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남한은 1990년에 3,549억불이었고, 2019년에 1조6,194억불로 북한과 비교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1/190수준이 될 정도로 훨씬 크다.

45) 베른하르트 젤리거, 「독일통일 20년에 대한 평가와 통일비용」, 『통일한국』 323호, 2010: 25.

46) 강인수, 「독일통일 25주년의 경제적 성과와 한계 - 통일 리스크에 대한 사전 준비 강화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VIP report』, 632권, 2015: 1-13.

47) 김재영, 「통일비용의 재원과 조달방법」, 『통일법연구』 제1권, 2015: 317-351. 통일비용이란 일반적으로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사회수준을 남한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에서도 분명히 검토되어야할 문제이다.

독일은 분단이후에도 인적교류가 많이 이루어졌다[48]. 백만명 이상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진 독일과 백여명 남짓한 수준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진 우리에게는 너무도 부러운 현실이다. 또한 1961년 베를린장벽이 쳐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1953년 휴전으로 오랫동안 비무장지대(DMZ)가 존재했다. 1998년에 금강산관광이 이루어지고 2000년에 개성공단이 착공되어 2005년부터 한국기업이 입주하면서 남북간의 화해분위기가 이루어졌지만 북핵문제로 최근에는 재개조차 못하였다. 2018년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분단이 민족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의해 4개로 분단되었다. 독일은 유럽의 한가운데에 있어, 무려 8개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어서, 폴란드를 비롯한 다자간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남북은 오직 서로간의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을 뿐이고, 한국전쟁 중에 중국과 미국이 서로 피를 흘리며 싸웠으며, 냉전 때나 지금이나 두강대국은 여전히 패권경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일본이 간접적으로 간섭을 하고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다.

(2) 스포츠교류의 차이

동서독은 1951년부터 1955년까지 불과 5년 동안에 200여회에 걸쳐 공식 또는 비공식적 접촉과 회담을 가졌고 올림픽 단일팀 성사 후 1957년 한 해 동안 무려 1,530회의 스포츠교류를 실시하였다[49]. 1970년 동서독 기본조약

48) 전종덕, 앞의 책, 2019: 132. 1964년 9월 9일 동독이 서독 방문을 대폭 확대 허용하는 시행령을 발표하였는데, “연금수령자(정년 퇴직자, 산재연금수령자, 장애연금수령자)에 한하여 연간 4주간 서독의 친인척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연금수령자들이 서독의 친인척을 방문하였다. 이후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발효로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에 150만 명, 1986년에 200만 명을 돌파하였다

49) 주독대사관(1993), 『동서독 교류협력 사례집』 12장 스포츠 교류에서는 12-1 단절과 경쟁의 스포츠 교류사(기본조약 체결 이전), 12-2 스포츠 교류에 대한 입장, 12-3 조약 및 협정, 12-4 스포츠 교류 계획의 수립과 시행상의 제문제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과 1972년 통행조약에 이어 가장 먼저 제도적 틀을 갖춘 게 양독 스포츠의정서였다. 동서독 스포츠교류가 통일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명확한 답을 할 수는 없지만, 서로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작은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지나친 논리비약은 아닐 것이다.

남북간의 스포츠교류회담은 다른 어느 분야의 회담보다도 먼저 시작되었고 더 자주 개최되었다. 그러나 동서독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적었다. 남북간의 변화는 냉전체제의 종식과 탈냉전의 조류가 거세지면서 시작되었다. 1990년 9월부터 총리급 남북고위급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8차례나 이루어졌다. 남북스포츠교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합의사항은 1991년 5차회담에서 이루어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이다[50]. 동서독의 스포츠의정서와 유사한 내용으로 정리되었다.

남북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스포츠교류를 발전시킨 경험이 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남북스포츠교류가 침체기였지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2018년 한 해에만 9건의 커다란 스포츠교류가 있었다.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9월평양공동선언」까지 도출해낼 수 있었고, 북미회담도 두 차례나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진행된 남북스포츠교류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이상으로 남북스포츠교류 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4) 남북의 변화와 스포츠교류의 역할

(1) 남북의 변화

김병로·김경희의 연구(2011)와 정은미(2013)의 연구에 의하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생각은 남한에 비해 북한주민이 월등히 높으며 통일이 가져다 줄

5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백서』, 2014: 542-543. 이 합의서는 남북은 당장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상호인정, 군사적 불가침, 교류협력을 통한 점진적 통일을 내외에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그중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에는 스포츠교류·협력의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이익 기대감도 북한주민이 훨씬 높다고 하였다[51]. 김병조(2015)는 한국인의 통일인식은 세대별 격차 현상과 세대내 분화가 혼재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52]. 2019년 현재 남북통일을 비관적으로 보는 남한사람들이 전년도보다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각종 통계자료가 말해준다[53].

2019년 6월 현재, 3만3천22명의 북한주민이 북한을 탈주하여 남한에 정착하고 있다[54].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통일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반면, 아직까지 이들의 정착에 대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

여전히 사회주의체제와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도 변하고 있다. 특히 고난의 행군[55]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스포츠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있지 않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서 자본주의 국가의 퇴폐적 산물로 여겼던 야구, 골프, 볼링, 수상스키 등도 허용하였고, 1990년에는 프로권투, 프로농구도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서는 고유한 북한식 스포츠용어에서 국제용어를 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56]. 김정은위원장 집권이후인 2013년 5월에 평양국제축구학교를 개교하기도 하였고, 최근 해외 축구감독을 초빙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축구유학생을 보낸 바 있는데, 이탈리아 세리에 A에 진출한 한광성선수가 바로 그중 한명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옛 소련의 스포츠정책인 '노동과 국방을 위한 체육(GTO)'을 모방하였고, 여성들의 스포츠대회를 일찍부터 대중화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는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51) 김병로, 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 평화』 4(1)·2012: 101-139. 정은미,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 의식 변화: 2011~2013년 설문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5(2), 2013: 74-104.

52) 김병조, 「한국인의 통일인식 2007~2015: 세대별 격차와 세대내 분화」 『통일과 평화』 7(2), 2015: 3-41.

53) 통일연구원, 「2019년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18년 70.7%에서 2019년에 65.6% 감소했고, 평화공존을 통일보다 선호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또 10명 중 4명이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통일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통일과 경제를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경제를 선택하겠다고 대답하였다.

54) 통일부,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tatus/lately/

55) 고난의 행군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최악의 식량난을 가리키는 말이다. 북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1996~2000년 간 아사자 수는 33만여 명으로 추산한다.

56) 정동길, 『남북한 스포츠교류시대를 위한 북한 체육 스포츠영웅』, 다인미디어, 2001: 159-199.

2012년 런던하계패럴림픽에 처음으로 참가했고, 이번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에도 참가하였다.

북한은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을 '특정보호대상'으로 설정하는 등 장애인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2000년대 이후 장애인에 대해 법률제정과 조직구체화 등의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57].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법률의 제정과 조직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으나, 법과 현실은 다를 수밖에 없다. 독일의 Gudrun Doll Tepper교수(2019)는 통독이전에 서독의 장애인들은 재활과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엘리트스포츠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으나, 동독의 경우, 국위선양 목적의 국제대회 참가로 제한되어 있었고, 사회주의 국가간에 교류가 있었다고 하였다[58]. 그런 점에서 북한의 경우도 장애인스포츠현황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동독과 비슷할 것이다.

(2) 스포츠교류의 역할

독일통일이후, 동독지역에서는 교육통합을 위해 '교육에서 정치색과 이데올로기적 흔적을 제거하는 작업'과 '동독의 중앙집권적 교육체계를 연방주 중심으로 분권화 하는 작업'[59]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변화가 더디었다고 한다. 만약 남북통일이 흡수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작업이 가능할 것이지만, 일국양제와 같은 방식으로 연방제형태가 된다면 이러한 독일 방식은 우리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독일의 사민당은 재통일(Wiedervereinigung)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변함없이 통합(Einheit)란 용어를 사용하였다[60]. 독일통일문제는 유럽의 평화와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남북통일문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와 분리해서 논의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런 점에서 남북스포츠통합은 민족 간의 문제로 통일보다는 좀 더 쉬운 접근이 가능하다.

---

57) 통일시대, Vol 136, 2018. http://webzine.nuac.go.kr/tongil/sub.php?number=1967

58) Gudrun Doll-Tepper, Developments in sports for persons with disabilityes in Germany after Unification, 2019 Sport Issue Forum & The 31th Seoul International Sport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2019: 465.

59) 권오현, 앞의 글, 2006: 286.

60) 전종덕, 앞의 책, 2019: 148-149.

남북스포츠교류는 남북관계의 안전핀 역할을 한다. 주지하다시피, 1972년 미국과 중국 간의 핑퐁외교는 스포츠교류의 힘을 상징한다. 스포츠교류는 적대적 정치상황을 뚫어낸 스포츠의 순수함에서 나온다. 적대감이 커져서 거의 모든 영역에서 대화나 교류가 단절되었을 때마저 유일하게 교류를 가능케 하는 것은 남북스포츠교류였다. 그런 의미에서 기영노는 남북 만남과 교류의 열쇠가 스포츠라고 하면서 북한의 스포츠를 알아야한다고 하였다[61].

남북스포츠통합은 정치, 군사, 경제 분야보다는 쉬운 일일 것이다. 스포츠통합을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제도와 상황에서 상호 균형을 맞추거나, 새롭게 교육을 통해서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해심을 높이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니다. 통일 전까지, 아니 통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단계로 보다 쉬운 남북통합을 이루는 작업을 해야만 할 것이다.

5) 독일통일 경험으로 본 남북스포츠통합 방안

(1) 남북스포츠교류의 정책방향과 공동연구 협의체 구성

필자는 남북스포츠 교류정책을 평화지향, 통일지향, 공동번영 등을 제안한 바 있다[62]. 평화지향을 위해 법적체계 구축, 올림픽 이념의 확산, 남북 올림픽 공동 유치를 제안하였고, 통일지향 부분에서는 스포츠교류의 성화와 남북의 이질적인 스포츠환경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공동번영 부분에서는 올림픽 공동개최의 이익 공유와 스포츠중계방송공유를 활용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다가오는 2032년에 한민족이 올림픽공동유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는 통일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수많은 남북스포츠교류가 있었지만, 이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만큼 의미가 있던 때가 없었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간에는 엄청난 간극이 존재한다. 남북은 지난해만 해도 각종 교류로 화해 분위기가 고조됐지만 2018년

61) 기영노, 『스포츠는 통한다』 개마공원, 2019.
62) 나영일, 현주, 「평창동계올림픽이후 남북스포츠교류 정책 방안」, 『한국스포츠정책학회지』17(3). 2019: 101-118.

2월 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스포츠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올 스톱' 상태다. 작년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였으나 현재는 휴업 상태이고,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제안한 공동 방역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심지어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대북 식량지원마저 외면하고 있다. 이번 10월 15일 평양에서 월드컵 예선 남북 축구경기는 어쩔 수 없이 열었으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63].

이러한 남북 간의 불편한 관계에서도 스포츠교류만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아야할까? 무언가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한두 사람이 주도하는 남북스포츠교류연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중심의 연구공동협의체가 필요하다. 또한 간간히 이루어지는 역사와 문화, 화산활동 공동연구[64]와 같이 남북간 스포츠교류사업도 공동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남북스포츠교류를 위한 우회전략

독일의 경우, 동독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자유롭게 이주시키기 위하여 서독정부가 외환이나 상품을 동독에 지급한 '정치범 석방을 위한 거래(Haflingfreikauf. Freikauf)'를 하였다. 서독정부는 인신매매에 직접 개입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고 또한 외환을 동독에 직접 지급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물자지원 실무는 독일 신교연합회산하 사회구호복지기구인 Diakoni가 담당하였다[65].

남북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교류가 쉽지 않을 때도 민간기관인 남북체육교류협회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교류를 이어나갔다. 최근 남북체육교류협회는 남북스포츠선수들의 각종 경기와 훈련, 꿈나무 선수 육성 등이 가능한 '남북 스포츠교류 종합센터' 건립을 남북한에서 동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66]. 이

63)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치러진 2022 카타르월드컵 예선 남북 축구경기는 남한의 현장중계와 취재단 그리고 응원단은 물론 관중도 없이 진행된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64) 『겨레말큰사전』 편찬남북공동사업을 비롯하여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 아카이브구축사업, 백두산 화산관련 공동연구, 한복과 자수문화 교류연구 등이 있다.
65) 전종덕, 앞의 책, 2019: 132-133.

단체는 지난해 육로를 통한 남북 선수단 상호 방문을 포함해 남북 유소년축구 정기 교류전을 22차례 진행해왔는데, 정부나 지자체도 이러한 민간교류를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1946년 유네스코가 설립되었을 때, 유네스코는 그것을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과 아시아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긴급하고 구체적인 임무"로 여겼다. 그리고 나치 통치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독일에 유네스코교육연구소의 설치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1952년 유네스코 직속기관으로 교육연구소UIE(UIE: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가 서독의 함부르크에 설립되었다. 당시 서독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동서독 학자들을 포함한 동·서구 학자와 교육자들의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UIE의 특징 중의 하나는 동서유럽간의 대화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었다[67]. 또한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 협력학교사업(ASP)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평화와 상호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 평화, 인권 교육을 주제로 한 동독을 포함하여 이웃 국가들 간에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 참여함으로써 동서독간 이해 증진과 교류 확대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주변국들이 독일 통일을 원치 않았던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유네스코를 적극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68].

필자는 2018년 12월에 유네스코를 통해 몽골에서 북한의 유네스코관계자와 태권도관계자를 만난 경험이 있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는 남북이 함께 자주 만날 수 있다. 또한 국내에도 다양한 유네스코기관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들과 대화의 통로를 만들고, 교류를 이어나간다면 이 또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유엔과 IOC는 남북스포츠교류협력과 통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중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대한체육회(KOC)는 우회전략을 적극 활용해야할 것이다.

---

66) “남북 스포츠교류 종합센터 남북한에 동시 짓겠다” 한겨레, 2019년 9월 4일.

67) Towards an Open Learning World: 50 Years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2002.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26240, 2019년 9월 23일 접속. 이와 관련하여, Maren Elfert의 Six decades of educational multilateralism in a globalising world: The history of the UNESCO Institute in Hamburg가 참조할 만하다.

68) 이승환, 전 아태이해교육원 원장면담. 2019년 9월 10일.

(3) 남북스포츠용어의 통합과 스포츠용어사전의 편찬

동독은 일찍이 술어학(Terminologie) 연구가 활발하였는데, Seiger. W는 신체교육과 신체문화에서의 '신체'를 Leib-란 단어로 할 것인지, Körper란 단어로 할 것인지 묻고, 신체문화(Körperkultur)를 신체교육(Körpererzihung)의 상위개념으로 신체훈련(Körperübungen)을 수단개념으로 생각하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반해 서독에서는 동독의 유물론에 기반한 이런 Körper의 개념보다는 Leib로 표현하였다[69]. 이는 우리말의 신체와 육체의 차이와 같은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남북은 서로 회담을 하면서 용어를 가지고 수많은 싸움을 펼쳤다. 1947년 남한이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이름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먼저 가입하였고, 북한은 1957년 불가리아 소피아 총회에서 잠정적으로 인정되었다. 당시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영어: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이란 이름을 쓰고 있어, North Korea란 이름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에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다가 1964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1963년에 조선올림픽위원회란 이름으로 가입하였다.

1990년부터 시작된 역사적인 남북 스포츠 단일팀 구성 때부터 축구, 농구, 탁구, 태권도 등의 종목 간 스포츠교류가 늘어났다. 이때부터 남북스포츠용어 문제가 나타났지만,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단일팀으로 출전하면서 이질적인 용어문제가 크게 불거졌다[70]. 분단 70년이 되는 현재, 같은 한글을 사용하지만 남북의 언어사용은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문화어(표준어) 정책에 따라 스포츠 용어도 '주체식' 표기법을 사용하는 반면, 남한은 국제공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남북단일팀이 함께

69) 岸野雄三, 『體育史』, 東京, 大修館書店, 1973: 9-14.

70) 1991년 3월 18일자 경향신문 '남북탁구 용어장벽 뛰어넘자'는 제하의 기사가 눈에 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의 경우, 북한은 '빙상호케이'라 부르고 있고, 스케이팅을 '앞으로 지치기', 블락샷을 '뻗어막기', 골리를 '문지기', 슛을 '처넣기', 패스를 '연락'이라고 한다. 탁구에서도 라켓을 '판데기', 서브를 '쳐넣기', 리시브를 '받아치기', 사인을 '표시', 스매싱을 '타격'이라고 한다. 2018년 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단일팀이었던 카누의 경우에도 북한은 '커누'라 하고, 드러머를 '북잡이', 패들어를 '노젓는 사람', 스타트를 '출발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다.

훈련을 할 때, '이질적 용어'가 문제가 된다.

2007년에 남북 및 중국의 학자들이 모여서 남북체육용어 통일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야기하였다[71]. 상당한 진전은 있었다. 남한은 지나치게 외래어 특히 영어식 표현이 너무 많다. 북한의 주체식 표기법은 고유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해서 이해하기 쉬운 것들이 많다. 새로운 스포츠통일사전을 만든다면 남한이 많이 양보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16년도 중학교 체육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문용어구축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논의한다면 스포츠용어를 통일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거의 동일한 씨름, 국궁, 태권도 등 전통무예분야를 시작으로 다른 스포츠용어를 통일하는 작업과 사전을 편찬한다면 좋을 것이다.

(4)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위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유치준비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하였다. 당시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 4조 ②항에서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선언하였다.

2032년 하계올림픽유치를 위해 남북당국이 서로 만나서 소위 비딩(bidding)이라고 부르는 입찰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작업을 나름대로 비밀스럽게 준비해야하겠지만, 성공적인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개방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한다.

---

71) 국어연구원, 『남북 체육 용어 통일 연구 보고서』, 당시 남한의 최기호, 김도균·조호성, 북한의 심병호, 오창복이 각각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였다. 당시 남한의 최기호는 남북 체육 용어 통일의 기본 원칙을 고유 토박이말로 된 용어를 기본으로 하여 통일 용어로 만들고, 한자말 용어를 고유 우리말로 순화해야 하며, 외국말 용어들도 되도록이면 우리 고유어로 순화해야 하며, 체육의 국제 공용어를 그대로 써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의 심병호는 고유조선말용어나 우리말로 만든 용어를 선택해야 하고, 우리의 언어생활에 익숙해진 한자말이나 외국말용어를 선택해야 하고, 합성용어인 경우에는 먼저 고유조선말과 한자말로 만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한자말이나 외국말을 합성하여 용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1988서울올림픽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을 가진 남한이 북한에 그런 경험을 전수해주는 것은 북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만 올림픽공원과 올림픽주경기장 등 33개 경기장을 만들었다. 당시의 총투자규모는 모두 2조 3,862억 원 규모였다[72].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외국 기자만 4,297명, 국내 기자 900명이었고, 24만명의 외국관광객이 왔다[73]. 이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이 110만 2,000명이었다[74]. 이들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상상해보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변화는 엄청날 것이다. 북한이 남한과 올림픽을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다면, 삼성을 비롯한 IOC의 공식후원기업과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과 국내의 수많은 기업의 후원이 따라올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은 유산의 경험을 북한에 전수해야만 하는데, 이때 반드시 남북의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5) 결론

스포츠교류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는 하지만,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순수함으로 인하여 남북관계에서도 최소한의 안전핀 역할은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와 우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하의 동독의 스포츠정책과 북한의 스포츠정책은 구소련의 스포츠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남한의 스포츠정책과 서독의 스포츠정책은 학교스포츠와 생활스포츠 그리고 엘리트스포츠의 발전과정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발전하였기에 차이보다는 유사점이 많다. 그런 점에서 독일통일과정 전후에 보이는 문제점들을 알아보는 것은 유익한 작업일 것이다.

통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고, 정치적 환경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독일통일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스포츠교류

72)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공식보고서』 1권, 1989: 825-826
73)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8046.
74) https://news.joins.com/article/22414051.

성과를 잘 이루어나가기 위한 나름대로 개인적인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첫째, 평화지향, 통일지향, 공동번영을 위한 스포츠교류정책과 공동연구협의체를 구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정부간 교류도 좋지만, 서로가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민간교류, 유네스코, IOC 등을 통한 우회전략을 적극 이용해야한다. 셋째, 남북스포츠통합을 위한 쉬운 과제로서 스포츠용어의 통일과 스포츠용어사전을 하루빨리 편찬해야한다. 넷째, 상호이익과 공동발전을 위해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로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유치준비를 해야 한다.

2. '독일통일 경험으로 본 남북 스포츠통합 방안'에 대한 토론

하웅용 교수(한국체육대학교)

문재인정부 초기와는 달리 현재 한반도 상황은 주변의 정세로 인해 악화되는 상황이며, 정부는 평창올림픽 이후 끊어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절실하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이 주체가 되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지속적, 안정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하지만 현실은 미국에 밀려 당사자인 우리는 한발 물러난 형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과 북한의 상황을 분석하면 참으로 우리의 앞날이 막막할 따름이다. 2019년 2월의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10월 4~5일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미·북실무협상이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났다. 우리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시작을 알렸지만, 그 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momentum)은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핵포기'를 해야 북한이 원하는 또는 그 이상의 중요한 재건(major rebuild)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75] 이에 북한은 "자국내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이

75) Oliver Hotham, "Still room for U.S. and North Korea to make a deal, Trump suggests," NK News, Oct. 21, 2019.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 비로소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76]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식의 대화가 되돌이표처럼 계속되고 있다. 즉 미·북협상의 타결 또는 관계완화가 없는 상태에서 남북의 평화프로세스는 요원하며 마냥 기다리기에는 국내 국면도 힘든 상황이다. 짐작하건데, 이후 북한은 2018년 남북 정상의 두 차례 합의 내용과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며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이행도 대부분 대북제재와 연결되어 있기에 미국과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면서 주춤할 것이다.

나영일교수가 지적하였듯이 1953년 휴전이후 남북간 주요 교류였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은 북핵문제로 재개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2018년에 개설된 연락사무소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업도 없이 명맥만 이어가도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막막한 경색국면에서 남북 스포츠교류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도 녹녹치 못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과거 경험으로 볼 때, 남북한의 어떠한 교류도 정치적 긴장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한반도 정치적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남북스포츠교류는 요원하다. 스포츠교류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에 전문가의 눈에는 스포츠는 정치적 도구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과거의 남북 스포츠교류를 보면 성공할 때마다 범국민적 이슈가 되었고, 가시적인 효과로 인해 통일염원이 곧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단발성적인 행사로 끝났고, 이로 인해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남북 스포츠교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고 그로인해 연속성이 상실되었고, 교류중단으로 남북의 신뢰도는 더욱 악화되었고,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기도 했던 것이다. 이제는 우리국민들에게 스포츠교류 자체로만 남북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평창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종목에서 역사적인 남북단일팀이 구성되었지만, 젊은이들은 기존 선수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표팀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보면서 불공정과 상실감에 격분했다. 더욱이 10월 15일 평

76) 홍민,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원인과 북한의 전략,"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19.10.8., p.4.

양에서 개최된 월드컵예선전에서 보여주었던 북한의 이해하기 어려운 불협화음, 페어플레이에 벗어나 경기진행 등은 한반도의 평화무드는커녕, 긴장과 불안감을 고조시키기만 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면 남북스포츠교류는 어떤 식으로 해야 지속 가능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 우선 남북스포츠교류는 통일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 보다는 스포츠 경기 그 자체로 진행되고, 남북은 스포츠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찾는 동시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스포츠교류는 오롯이 남북 국민과 운동선수를 위한 행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북 스포츠교류는 어떠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스포츠교류 자체가 목적으로 가치가 인정되어야 서로를 존중하고 위하는 신뢰의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다. 이러한 목적지향적 가치를 통해 남북의 신뢰를 형성되고, 더 나아가 남북 통합된 스포츠시스템, 체계도 구성될 수 있다.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스포츠통합이 형성되지 않은 채 섣부른 남북스포츠교류 추진은 어쩌면 남북의 스포츠교류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다. 그나마 조성되었던 평화의 무드는 싸늘하게 변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번 남북축구대회에서 단절된 북한의 실체를 보고 몹시도 실망한 경험이 있다. 국민이 실망하고 외면하는 남북스포츠교류는 완전한 실패를 의미한다. 본 세미나는 남북스포츠교류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 자리에 참석한 대부분이 한반도 분단의 책임이 통감하는 기생세대로, 통일이라는 보편적이고 자연적 의무(duty)를 실현해야한다는 자발적 책무(obligation)에 대해 동의하며 연대적 책임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나 선택보다는 분단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무가 무겁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세대일수록 이러한 책무가 낯설기도 하다. 어쩌면 이시대의 젊은이들에게는 불안한 남북스포츠교류는 불공정하고 이치에 맞지 않기에 외면하며 무관심할 수 있다. 정부주도로 남북스포츠대결이나 교류를 동족간의 감성팔이 행사로 진행한다면, 각종 국내 프로스포츠, 메이저리그, 유럽축구에 길들어진 대중에게 는 식상할 수밖에 없다. 소위 남북스포츠대결, 교류에 있어서 기회

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에 승복해야 남북 모든 국민이 열광할 것이다. 감성으로는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재미와 흥미가 우선되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남북스포츠통합은 이처럼 어려운 일이다. 남북의 신뢰를 기본으로 남북스포츠교류 자체가 목적으로 가치가 인정되어야 나영일교수가 주장하는 공동연구의 협의체를 구성될 수 있고, 타당한 남북스포츠교류의 정책방향이 설정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물론 민간과 IOC, OCA, FIFA 등 각종 스포츠단체, UN, 유네스코 등 국제단체의 다양한 류트를 통해 남북 스포츠교류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남북의 신뢰, 이익과 공동발전을 바탕으로 남북 스포츠통합제도와 시스템, 체계가 구성되어야만이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가 가능할 것이다. 당장 내일의 남북 상황도 예측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무슨 올림픽을 공동유치가 가능하겠는가? 우리는 IOC가 엄청난 예산과 보안을 담보로 하는 올림픽대회 개최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숙고하는 필수조건이 '미래예측 가능한 곳'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3. 한국 정부의 남북스포츠 교류정책 성과와 한계

김미숙 책임연구위원(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 서론

남북관계에서 체육(스포츠) 교류와 협력은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을 증대시켜 통일 한국의 사회문화통합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남북 관계가 우호적일 때에는 체육교류가 마치 그 결과물처럼 이어지거나 혹은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서는 체육교류가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 상호간 대화채널을 복원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체육교류의 지속적 수행을 위해 한국 정부는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239호 1990.8.1.)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동법 24조에서는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남북 간 공식적인 체육교류는 1963년 1월 24일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된 “1964 도쿄하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체육회담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02). 이후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2000년 시드니하계올림픽 개막식 공동입장, 2007년 남북유소년축구선수단 상호교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등 오랜 시간 동안 남북 체육교류는 연속과 불연속이 공존해왔다. 얼마 전 개최된 남북축구경기는 1990년 10월 이후 29년만에 북한에서 개최된 대회였으나 ”무관중·무중계·무승부“라는 예상하지 못했던 대회로 역사적 기록에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체육교류에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희망이 현실로 계속 이어지기 위해 한국 정부의 체육교류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남북 체육교류의 개념

최근에는 남북체육교류 또는 체육교류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하는 「체육백서」에 의하면 ‘남북체육교류·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77]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교류는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환행위의 촉진 이상의 협력 의미가 강한데, 사전적 의미로 교류란 “문화나 사상 따위가 서로 오가면서 섞이는 것”이며 협력이란 “서로 돕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다(문화관광부·체육과학연구원, 2002). 남북관계에서 ‘교류’와 ‘협력’ 이라는 단어를 모두 차용하는 것은 교류를 통해 ‘문화나

77)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체육백서」에서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남북체육교류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상 따위가 서로 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으로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 것’을 지향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서 체육이 제 몫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남북체육교류협력에서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3) 한국 정부의 체육교류 정책과 성과

2019년 통일백서에 의하면 정부는 남북대화의 정례화와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즉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신뢰도 제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정상 간 합의과정에서의 분야별 회담과 협의,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18 아시안게임에 남북이 공동 진출하였고, 2020 도쿄올림픽 공동 진출, 2032 하계올림픽 공동개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통일부, 2019). 이러한 최근의 성과는 과거 법제도를 통해 발휘될 수 있었다. 즉 정부가 추구하는 남북 교류는 상호간 인적, 물적 교류 및 교환을 추진하고, 남북교류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정부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열여덟번 개정을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 제2조 4항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주민(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1783&efYd=20140612#0000.

2005년 통일부 고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1조에 의하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

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제3조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 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 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

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http://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26585

그리고 관계법령 및 유사법령으로 「남북협력기금법」이 있는데 “이 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남북한 주민의 남북 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분의 지원, 2. 문화·예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5179&efYd=20101118#0000)

이러한 정부의 남북교류 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결과물로 그 성과를 가늠할 수 있다.

1957년 12월 18일, 1960 로마올림픽 단일팀 구성 회담을 제의한 북한올림픽위원회 홍명희 위원장의 대남 서한을 필두로 시작되었는데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시도되지 못했다(최대석, 1995; 성문정, 2018). 그러던 중 1963년 1월 24일 로잔 IOC본부에서 최초의 체육 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그림 6. 경향신문(좌), 동아일보(우) 1963년 1월 24일자

표 3. 1960년대 남북체육회담 개요

	내용		
1963. 1. 24 제1차 남북 체육회담(로잔)	남한	단일팀의 국기: 태극기 국가연주: 아리랑	
	북한	단일팀 국기: ①전면 태극기, 후면 조선기 ② 한반도 중심에 오륜 표시 국가 연주: 전반 25초 한국가, 후반25초 조선가	
	합의 사항	1964년 동경올림픽대회에 남북 단일팀 구성 국가: 아리랑 동서독 사례 준용에 의한 선수 선발 국기: IOC집행위원회에 일임	
1963. 3. 11	북한	조선올림픽위원장	11.28 제의와 관련, 판문점 또는 서울, 평양에서 회담 속개
1963. 3.29	북한	조선올림픽위원장 홍명희→대한올림픽위원장 및 국제올림픽위원장에 전문	〈남북조선 올림픽위원회 대표회담 제의〉 조선올림픽위원회는 유일팀 구성을 위한 선수선발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남조선올림픽위원회 대표회담 제의 -일시:1963년 4월 25일 -장소: 판문점이나 평양·서울 또는 쌍방이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지점
1963. 5. 17~6.1 제2차 남북 체육회담(홍콩)	북한	남북의 20개 경기단체 대표들이 8월 30일까지 만나서 예선전 일시문제를 토의	
	남한	북측의 주장은 양측의 올림픽위원회와 각 경기단체를 무시한 처사	
	합의 사항	① 심판문제는 국제경기연맹에 국제심판을 배정토록 요청 ② 예선경기의 사용기구는 국제연맹이 공인한 것, 또는 동경올림픽 대회의 사용기구 ③ 예선경기는 쌍방의 각종 경기 단체별 합의에 의거 실리 ④ 제정문제는 각기 부담 ⑤ 차기 회담의 장소와 일시는 IOC를 통해 추후 결정	
1963. 7.26 제3차 남북 체육회담(홍콩)	남한	본 회담의 원활한 진전을 위해 본 실무접촉에서 필요한 문제를 다룬 후 본 회담 개최 북측이 우리 회담 대표단에 대한 왜곡·비난선전 공개 사과 요구(북측대표단은 1차 홍콩회담 종료 후 귀국보고서를 통해 남측 대표단에 대한 비방 · 중상선전 전개(로동신문 6월 13일자)	
	북한	본 회담에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권수임을 주장 - 남측 대표단이 이를 확인한 후 문제토의를 진행 요구	
	결과	회의 결렬로 남북한 단일팀 구성 실패	

※ 참고 : 국토통일원(1986), 김흥태(2003), 성문정(2018)

1960년대는 분단 이후 상호 체제 유지와 경쟁 구도로 압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표 7>과 같다. 1960년대 로잔에서의 남북체육회담은 남북한의 유일한 대화 창구로서 역할을 했다는 데에 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표 4. 1970년대 남북체육회담 개요

	내용	
1979. 2. 27 제1차 남북한 탁구협회 대표단 회의	남한	〈남북 '단일팀 구성' 합의 시한 제시〉 1979년 3월 12일 까지 단일팀 구성에 합의하도록 최선의 노력 1979년 3월 12일까지 단일팀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탁구선수단의 판문점을 통한 대회참가 보장을 북측에 요구
	북한	〈남북 '단일팀 구성' 을 위한 절차문제 우선 토의 주장〉 선수선발: 국제탁구연맹 순위 사정의 개인등급 순위 우선 적용 공동훈련은 평양에서, 공동단장제 채택, 선수단 명칭은「고려」로 사용
1979. 3. 5 제2차 남북한 탁구협회 대표단 회의	남한	〈한국 선수단의 대회참가 선보장 요구〉 북한측은 대한 탁구협회가 국제탁구연맹의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기득권을 인정, 한국 선수단에 대한 대회참가를 확실히 보장 대진표 추첨일(3월14일-5일)을 감안, 단일팀 구성문제다 3월12일까지는 합의되어야 한다는 입장 재천명
	북한	〈남북 통일팀 구성 및 합의서 채택 제의〉 민족 통일팀을 구성하여 출전 선수 선발: 가장 우수한 선수, 가급적 양측에서 평등, 훈련장소: 평양 공동단장에(양측 1명씩) 명칭은 「고려탁구선수단」, 표식은 조선지도에 고려하는 우리글이 들어 있는 도안을 쌍방합의하에 제정
1979. 3 9 제3차 남북한 탁구협회 대표단 회의	남한	〈남북체육교류·단일팀 구성문제 동시협의 촉구〉 단일팀 구성이 전반적인 남북한 체육교류 원칙의 일환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단일팀구성 및 남북한 체육교류의 동시협의를 제의 한국 선수단의 평양대회 참갈 선보장 해줄 것을 요구
	북한	〈남북 단일팀 구성 절차문제 토의 주장〉 남측이 '기득권' 문제를 제기, 회의에 인위적인 난관을 조성 통일팀 구성을 위한 합의서에 즉각 동의할 것을 요구
1979. 3. 12 제4차 남북한 탁구협회 대표단 회의	남한	〈전반적 체육교류의 일환으로 남북탁구 교환경기 제의〉 한국선수단의 대회참가를 무조건 보장하는 성명요구(3월17일 限) 전반적인 체육교류 추진의 일환으로 남북한 탁구교환경기 제의 - 6월,7월 중 서울과 평양에서 한 차례씩 친선경기 개최 - 이를 협의하기 위한 쌍방대표회의를 5월중 판문점에서 개최
	북한	〈남북통일팀 구성에 관한 합의서 서명 조건부로 기득권 인정〉 남한의 참가 기득권 사용 불용납: 남측을 '분열팀' 이라 비난 통일팀 합의서의 서명·교환후 남한 대회참가 기득권 인정

※ 참고 : 국토통일원(1986), 김흥태(2003), 성문정(2018)

한편, 1970년대는 미소 양국의 공존 모색, 동북아시아의 다극 체제로의 변화, 무엇보다 7·4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의하여, 1972년 9월 8일 뮌헨에서 당시 대한체육회 회장 김태수, 조선체육지도위원회 겸 올림픽위원장인 오현주가 “남북체육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후 북한 측 배구지도자 초청/남북축구경기개최 제의,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한 선수 초청 담화를 발표하였고, 1979년에는 남북탁구협회 대표회담을 개최하였다.

표 5. 1980년대 남북체육회담 개요

	내용	
1984. 4. 9 제1차 남북체육회담 (판문점)	남한	〈남한체육회담 의제 및 단일팀 구성 방안 제시〉 회담 의제 제시: 84년 LA올림픽대회, 86년 아시아경기대회, 88년 서울올림픽대회 비롯 국제 체육경기 대회에 참가한「남북 단일팀」 구성 남북한 단일팀 구성 방안: 단기는 올림픽 「KOREA」표기, 단가는 「아리랑」, 호칭은 「대한」과 「KOREA」
	북한	〈남북체육회담 의제 제시〉 회의 일정 제시: LA올림픽 경기와 국제체육경기대회에 유일팀 출전 - 북과 남의 체육분야에서 합작과 교류를 실현하는데 대한 문제
1984. 4. 30 제2차 남북체육회담 (판문점)	남한	버마사건 시인·사과 요구: 북한측이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회에 임하는 성실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
	북한	〈남북 유일팀 구성 방안 제시〉 유일팀 구성에 대한 일반안: 선수단 명칭은 「고려」와 「KORYO」, 단가는 「아리랑」 공동상설기구 설치: 유일팀 공동 사무국: 판문점 LA올림픽 유일팀 구성안
1984. 4. 30 제3차 남북체육회담 (판문점)	남한	〈남북체육교류 방안 제시〉 국제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한 단일팀 구성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 남북 체육교류방안 7개항 제시 ① 남북한간에 교환 경기 개최 ② 남북한이 개최하는 국내체육행사에 서로 참가 보장 ③ 남북 쌍방간에 체육인 상호 왕래 ④ 남북 쌍방간에 체육에 관한 기술과 자료교환 ⑤ 쌍방의 체육행사 등의 취재를 위해 기자들의 상호 방문 허용 ⑥ 남북 쌍방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위해 서로 편의 제공 ⑦ 남북공동 체육강습회 개최, 공동부담으로 비무장지대 내 공동 체육시설 건립
	북한	〈실질문제 토의 회피 및 회담공전책임 전가〉 미얀마 사건은 남측 당국의 자작극 체육회담에 계속 진행을 위한 조건 제시, 의제 토의 회피

1980년대에는 남북체육교류를 위한 체육회담들이 개최되었는데 특히 제11회 북경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논의가 북한의 제의로부터 시작되었고, 본 회담 아홉차례와 실무대표 간 여섯 번의 접촉을 기록하였다(성문정, 2018).

표 6. 1990~2000년 남북체육교류 개요

내용	개최지	일시	참가규모	특성
남북(대표팀)통일축구대회 서울·평양 교환경기	평양	1990.10.09~1990.10.13	76명 (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0명)	남한: 체육부장관 인솔
	서울	1990.10.21~1990.10.25	78명 (선수단 45명, 인솔 11명, 보도 22명)	북한: 국가체육위원회 위원장 인솔
제41회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	오사카	1991.04.24~1991.05.06	56명 (남북 각 28명, 선수 각 11명씩)	한반도기 사용 국가: 아리랑
제6회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참가	리스본	1991.06.14~1991.06.30	62명 (남북 각 31명, 선수 각 9명씩)	한반도기 사용 국가: 아리랑
통일염원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평양	1999.08.10~1999.08.14	37명 (선수단 22명, 인솔 15명) 남북 노동단체	08.12(남북대결) 08.13(남북혼합팀 구성)
현대 통일농구 교환경기	평양	1999.09.27~1999.10.01	79명 (선수단 42, 현대관계자 31, TV중계요원 6)	09.28(혼합경기) 09.29(남북대결)
	서울	1999.12.22~1999.12.25	62명 (선수단 38명, 교예단 14명, 위성중계 기술자 2명, 아태관계자 8명)	12.23(혼합경기) 12.24(남북대결)
금강산 자동차질주경주대회	서울, 평양	2000.06.30~2000.07.04	차량 56대 (경기차량 23대 포함), 241명	사업대가로 100만 달러 지급
삼성 통일탁구 경기대회	평양	2000.07.26~2000.07.30	50명 (선수단 13명, 인솔 37명)	남북대결 및 남북혼합팀 구성 경기
시드니 하계올림픽대회 개막식 공동입장	시드니	2000.09.15	남북 각 90명씩 180명	한반도기 사용 호칭 : KOREA
제81회 부산 전국체전 금강산 성화채화	금강산 옥류동	2000.10.01	50명 (주관: 부산광역시-금강산관광총회사)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7)

김대중 정부에 들어 민간차원으로 개최된 남북노동자축구대회(1999년 8월 12~13일 개최)로 시작하여 통일농구대회를 개최(평양 99.9.27~30/서울 99.12.23~24)하였다.

표 7. 김대중 정부 남북체육교류협력 현황

내용	개최지	일시	규모
통일염원남북노동자축구대회	평양	1999.8.10.~14	37명(선수단22/인솔15)남북노동단체
현대통일농구교환경기	평양	1999.9.27.~10.1	79명(선수단42/현대관계자31/중계요원6)
	서울	1999.12.22.~25	62명(선수단38/피예단14/중계요원2/아태관계자8)
금강산자동차질주경주대회	서울/평양/금강산	2000.6.30.~7.04	50명(선수단13/인솔37)
삼성통일탁구경기대회	평양	2000.7.26.~30	차량56대/241명
시드니올림픽개막식공동입장	시드니	2000.9.15	180명(남북 각90명)
제81회 부산전국체전 금강산 성화 재화	금강산	2000.10.01	50명
제2차 금강산자동차질주경주대회	금강산	2001.7.29.~31	차량56대/241명
태권도시범단교환	평양	2002.9.14.~17	65명(남35/북30)
	서울	2002.10.14	62명(남41/북21)
남북통일축구경기	서울	2002.9.5.~8	49명
부산아시안게임북한참가	부산	2002.9.22.~10.15	668명
아오모리동계아시안게임개폐회식공동입장	아오모리	2003.2.1.~8	남한선수단110명 북한선수단40명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7), 성문정(2018)

김대중 정부는 전반적으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체육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총 527명의 규모가 직항로로 김해공항에 입국한 사례도 있었다.

표 8. 노무현 정부 남북체육교류협력 현황

내 용		개최지	일 시	규 모
제22회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대구	2003.8.20~9.1	524명(선수단197/응원단327)
남북태권도교류협의 및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참관		대구	2003.8.17~21	3명
정주영체육관개관식 및 통일축구대회		평양	2003.10.6~7	800여명
제주민속평화축전		제주	2003.10.23~28	190명
아테네올림픽공동입장		아테네	2004.8.13~29	남한 136명/북한 50명
제2회동아시아축구선수권대회		대구/대전/전주	2005.7.31~8.7	북한 선수단 65명
남북통일축구대회		서울	2005.8.14~16	남여선수단
제4회마카오동아시아경기대회 공동입장		마카오	2005.10.29~11.6	남북선수단
6·15공동선언실천 남북강원도겨울철체육경기		춘천	2006.3.2~5	선수단 35명
도하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		도하	2006.12.1~15	남북선수단
북한청소년 축구선수단 상호교류	북한 유소년팀방한	제주/수원/순천/광양/서울	2007.3.20~4.20	북한 선수단 23명
		강진	2007.6.1~14	북한 선수단 34명
	남한 청소년팀방북	평양	2007.6.23~7.3	남한 선수단 26명
		평양	2007.11.3~14	남한 선수단 22명
북한태권도시범단방남		서울/춘천	2007.4.6~9	북한 시범단 46명
남북노동자통일축구		창원	2007.4.30	
2007FIFA청소년월드컵(U-17)		서울 등	2007.8.18~9.9	북한 선수단 38명
제2회국제청소년친선축구대회		강진	2007.10.13~25	북한 선수단 22명
평양시체육단축구장준공식		평양	2007.11.9	남한 대표단 145명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7), 성문정(2018)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교류협력 또한 간헐적으로 나타났다.

표 9. 이명박 정부 남북체육교류협력 현황

사 업 명	일 시(장소)	참 가 자
아시아시니어 레슬링선수권대회	08.3.18~23(제주)	북 선수단 15명
2008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08.4.26~27(제주)	북 선수 17명
2010 FIFA 남아공 월드컵 3차 예선전	08.3.26(상하이)	남북축구대표팀
	08.6.22(서울)	남북축구대표팀
2008 남북태권도 교류행사	08.6.28~7.1(평양)	(사)ITF태권도협회 남측 60명
남북체육교류협회	08.6.14~26(평양)	유소년축구선수단
유소년축구단 교류	08.10.8~15(평양)	경수유소년축구단
2010 FIFA 남아공월드컵 최종예선	08.09.10(싱하이)	남북축구대표팀
남북체육교류협회	09.2.25~28(평양)	협회 관계자 17명
2010 FIFA 남아공월드컵 남북예선전	09.3.29~4.2(서울)	북 선수단 43명
피스앤스포츠컵	11.11.21~22(도하)	남 2명, 북 2명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7), 성문정(2018)

박근혜 정부 남북체육교류는 이전 이명박정부의 경색된 남북관계의 연속선상으로 그리 뚜렷한 성과를 남기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표 10 박근혜 정부 남북체육교류 현황

내용	일시 및 장소	규모
2013 동아시아연맹 축구선수권대회	2013.07.20~28(서울/화성)	북한여자축구선수단 26명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UNOSDPYLP	2013.08.22.~09.03(광주)	북한청소년대표단 4명
2013 아시안컵 및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2013.09.12.~17(평양)	우리선수단 41명 방북
2014 인천 아시아대회	2014.09.19.~10.04(인천)	북한선수단 273명 방한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대회	2014.10.18.~10.24(인천)	북한선수단 33명 방한
2014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	2014.11.07.~09(연천)	유소년축구단 32명 방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2015.10.28.~31(평양)	한국노총·민주노총 대표단 162명 방북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7), 성문정(2018)

현재 문재인 정부의 남북체육교류는 남북관계 개선의 노력을 강화하며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체육교류의 긍정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

표 11. 문재인 정부 남북체육교류 현황

내용	시기	규모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ITF시범단 공연	2017.6.24~30	-
제3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중국 쿤밍)	2017.12.18.~22	북한 2팀 참가
평창동계올림픽 공동입장	2018.2.9.~25	-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참가	2018.3.9.~18	북한선수12명
평창동계패럴림픽	2018.6.18	북한 선수단 및 대표단 24명 참가
남북체육회담(판문점 평화의집)	2018.6.28	-
남북체육회담 후속 4자회담(자카르타)	2018.7.3.~6	OCA, 남한, 북한, 2018아시안게임조직위
통일농구대회 개최(평양)	2018.8.10.~12	남한 남녀 대표팀 참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서울)	2018.8.15.~18	북한 64명 참가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평양)	2018.8.31.~9.15	남한 2팀 참가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2018.10.6.~13	북한 선수단 22명 참가
2018인도네시아장애인아시안게임 개폐회식 공동입장	2018.10.25.~11.3	-
수영 및 탁구 남북한 단일팀 참가	-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춘천 등)	-	북한 2팀 참가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7), 성문정(2018)

4) 한국 정부 체육교류의 한계

체육교류는 민족의식, 동포애, 민족정체성을 정립시키는 한편, 체육교류와 함께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양국 간의 기능적 통합 가능성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한다(곽형기, 2005; 김동선, 2014, 2016; 유호근, 2007; 정동성, 1998).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체육교류는 정치와 무관하지 않는, 오히려 정치적 상황 하에 정치적 의도에 의해 작동되거나, 갈등을 증폭시키고 긴장을 초래하는 기제로 작동했다는 주장도 있다(Merkel, 2009). 아울러, 비정치적인 분야가 정치분야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하였으며(김계동, 2008), 여전히 남북 체육교류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성문정, 2018).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남북체육교류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스포츠는 물론 사회문화 분야 대부분 정치적 상황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 둘째, 정기적인 남북체육교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미비, 셋째, 남북체육교류 내용의 협소, 넷째, 단발성·과시용 대회에 그친다는 공통된 문제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정기웅, 2011; 성문정, 2018; 민두식·김미숙, 2018)

5) 한국 정부의 체육교류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많은 언론들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를 올림픽 가치를 구현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대회 기간 동안 김여정 북한 특사 외 총 400여명의 선수단, 응원단, 예술공연단의 참여 자체도 그 의미가 있지만, 대회 개최 이후 남북 정상회담이 연이어 세 차례 있었다는 것 또한 역사상 쉽지 않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이 체육교류는 분단된 민족의 이질감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남북 체육교류는 소수 종목, 국제대회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정부가 남북간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체육교류를 어떻게 지속해야하는 체육교류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체육교류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남북 체육교류 관계법의 법적 근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 체육교류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립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끝으로, 체육교류를 위한 지원사업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기존에는 국제대회에 제한되어 있는데 남북공동훈련, 경기력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연구 교류 협력, 씨름 등 전통무예 보존과 복원 협력, 지역별 전통놀이 자매결연, 생활체육 교류 협력 등 콘텐츠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힐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동선(2019).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고찰. 제100회 전국체전기념 제57회 한국체육학회 학술대회, pp. 102-112.

김흥태(2003). 남북 체육교류협력에 관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나영일·현주(2019).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스포츠교류 정책 방향. 한국체육정책학회지 50권, pp. 101-118.

문화관광부·체육과학연구원(2002). 2002 체육백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체육백서, 문화체육관광부.

민두식·김미숙(2018). 남북한 스포츠교류의 비판적 고찰을 통한 협력 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제10권 1호, pp. 1~15.

성문정(2018). 지속가능한 남북 체육교류 기반구축을 위한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정기웅(2011). 남북 협상의 전략적 선택구조와 스포츠 : 평창동계올림픽 남북한 공동개최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5권 제3호, pp. 249-274.

통일부(2019). 통일백서. 통일부.

4. '한국 정부의 남북스포츠 교류정책 성과와 한계'에 대한 토론

안지호 연구위원(고양시정연구원)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서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의 나영일 교수님을 비롯한 포럼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이 되는 독일에서도 의미 깊은 해이기 때

문이 오늘 이 논의가 더욱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에 계신 체육 분야의 전문가와 달리 저는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가 독일에서 독일통일 또는 통합을 주제로 공부해서 아마 이 자리에 초대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이야기 잠깐 하고 오늘의 주제인 남북체육교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독일은 지리적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한국과 거리가 먼 나리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한국은 분단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살았습니다. 베를린의 이방인으로 4년 동안 독일의 통합 과정을 직접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제가 베를린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경험한 재미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언어입니다. 독일통일과 관련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재통일(Wiedervereinigung), 평화혁명(friedliche Revolution), 대전환(Wende), 붕괴(Zusammenbruch) 등이 떠오르는데 이 말의 뉘앙스는 다 다릅니다. 구 동독주민들은 재통일(Wiedervereinigung)이란 말 대신에 대전환(Wende)라는 말을 선호하는 듯 합니다, 아마 재통일이라는 말에 서독이 주도가 되어 동독을 통일(병합)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듯해서 구동독인들은 이 말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언어 속에서도 독일통일 문제는 여전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경제, 법, 행정과 같은 외적 제도의 통일은 종료가 되었지만 문화적 차원에서, 흔히 독일인들이 머릿속 장벽(Mauer im Kopf)이라고 부르는 사회통합은 통일이 된지 30여년이 되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제가 언어의 문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언어의 문제는 인간의 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말), 스포츠, 예술 등은 인간의 신체활동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간의 문화적 활동에 속합니다. 문화는 일종의 집단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포츠가 인간의 신체활동과 밀접하여 문화의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는 사실이 바로 외적 제도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 뿐만 내적 제도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이러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지방정부 싱크탱크이므로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김미숙 박사님의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 박사님께서 잘 지적하셨지만, 정치구조적 측면에서 비정치적인 교류사업 역시 남북관계에서는 정치적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사업 역시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남북관계가 좋지 않으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역시 거창한 계획만 있지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교류 사업을 포함하여 남북교류사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교류사업의 유연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과 핵심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과 같은 통일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체육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일하는 고양시는 남북의료/바이오 클러스터, 남북방송영상콘텐츠라는 경제특구와 경협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고양시 평화경제의 장기적인 비전제시를 통해 고양시 소재의 국립암센터,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 6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한편 우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체육교류 분야도 이러한 유연한 교류협력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는 체육교류와 관련하여 기존의 행위자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킹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킹을 통해 지금까지 남북체육교류에서 인식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를 위해 지방정부의 체육교류와 관련한 혁신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체육교류와 관련하여 다양한 지방정부들간의 네트워킹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남북교류사업의 유연한 대응이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가능하며,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는 훌륭한 사회통합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

다. 특히 우리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통일공감대 혹은 평화공감대 강화를 위해서는 체육은 훌륭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교육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있어서 신체활동에 근간을 둔 스포츠는 지금보다 더욱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5. 독일 통일 경험이 남북스포츠교류의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

송형석 교수(계명대학교)

1) 발표의 주제와 내용에 대하여

이 컨퍼런스는 남북통일의 당위성에서 출발한다. 남북통일의 당위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먼저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민여론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이 2018년 9월12부터 10월5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일해야 한다.’는 여론은 50.8%로 나타났다. 국민의 과반수이상이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중앙일보, 2019년 10월 2일). 이외에도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측면에서, 인도적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통일의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성창환, 2015).

이 발표문의 목적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성사시킨 독일의 경험을 참고하여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스포츠교류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처음에 발표를 의뢰받은 주제는 “독일통일경험에 비추어 본 남북스포츠통합의 방향”이었다. 따라서 발표자가 주제를 “스포츠교류의 방향”으로 바꾼 이유를 짧게라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통합의 방향”이라는 주제는 발표자에게 약간의 거부감과 부담감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남북한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스포츠가 먼저 통합되어야한다.”는 결론을 사전에 정해 놓고 논의를 시작한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스포츠를 통합시키는 일이 과연 남북의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북핵문제 등 선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남북스포츠를 통합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많이 들었다. 독일통일에 대한 사례 연구도 스포츠의 통합 노력이 의도와는 달리 분단의 해소보다는 고착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왜 그런가? 독일의 스포츠 통합 노력은 주로 엘리트스포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 말까지 독일에는 단 하나의 NOC만이 인가되어 있었으며, 서독과 동독 선수들이 올림픽경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단일팀을 구성해야만 했고, 몇몇 종목들의 경우 공동으로 국제경기연맹에 가입해야만 했다. 동독 집권세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권력유지를 위한 기회로 이용했으며, 그 결과 스포츠교류가 분단의 극복보다 고착화에 기여했다는 견해가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스포츠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논의는 발표자에게 약간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한편, 이 주제가 부담감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남북스포츠통합이란 말이 이론적으로 애매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이론적으로 애매한 이유는 통합의 대상과 방법이 너무 다의적이기 때문이다. 스포츠통합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남한과 북한이 아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북핵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의적이고 실현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논의는 처음부터 이것을 논의하려는 자에게 부담감을 준다.

이상의 이유에서 발표자는 주제를 다루기가 다소 용이한 “스포츠교류의 방향”으로 바꾸었다. 논의에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통일은 동독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는 점을 밝힌다. 둘째, 동독주민을 움직이게 만든 것은 40년 동안 지속된 동서독교류과정에서 응축된 희망적 통일의미론이라는 점을 규명한다. 셋째, 스포츠교류는 동서독주민들의 교류가 지속되도록 만들어주었다는 점에서 독일통일에 기여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넷째, 스포츠교류가 남북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교류가 스포츠교류로

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2)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

독일통일은 분단국가의 통일 중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 동서독이 성공적으로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양창석(2011: 1-15)은 독일통일이 동독주민의 대규모 탈출로 촉발된 동독 공산정권의 붕괴, 냉전구도의 해체, 서독정치지도자의 역량, 그리고 서독의 경제력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한관수와 김재흥(2012: 1-24)은 독일처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변국들의 협조와 양해가 있어야하며, 여기에 분단국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용길(2013: 466-482)은 서독이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환경을 잘 활용해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전승 4대국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냈고, 내독 관계에 있어서 동독과 상호 공존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접속과 교류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통일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성창환(2015)은 독일통일의 성공 요인을 국제환경의 변화, 동독주민의 민주혁명, 동서독 간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협력, 서독의 국력 네 가지로 꼽았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독일통일의 성공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서독의 국력[78], (2) 동구권 몰락, 페레스토로이카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상황을 잘 활용하여 전승 4대국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낸 서독의 외교력[79], (3) 동서독 양국 간 상호 인정, 공존, 공영에 대한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철저하게 준비해온 서독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80], (4) 탈주와 민주혁명으로 표출된 동독 주민의 통일

78) 서독은 경제력에서 세계 3, 4위를 유지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고, 각종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복지 국가였으며, 자유와 인권이 충분히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다. 이와 같은 서독의 상황은 동독주민들에게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막강한 경제력으로 대변되는 서독의 국력은 독일통일의 중요한 성공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79)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는 전승 4대국인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등의 동의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중 어느 나라도 독일의 통일을 원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정치인들은 동구권의 몰락과 페레스트로이카로 대변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잘 활용하여 이들 4대 전승국의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냈다. 국제정세가 변화지 않았다면 독일 통일 자체가 불가능했거나 이후로 미루어졌을 것이다.

에 대한 강한 열망과 노력[81], (5) 계속된 동독과 서독 주민 간 공식적, 비공식적 교류[82].

발표자는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중 가장 결정적인 요소를 선택하라고 하면 네 번째 요소를 언급하고 싶다. 독일통일의 실질적 원동력은 동독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노력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김영탁, 1997: 168). 통일연구원의 손기웅(2010)도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린 동독주민들에게서 나왔다고 썼다. 성장환(2015)도 동독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저항 및 희생을 동반한 통일 노력이 없었다면 독일통일은 성사되지 않았거나 훨씬 뒤늦게야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식과 김경웅(1991: 15)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독일통일의 결정적 동력은 동독 내부의 대변혁으로부터 용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동독 내부의 대변혁은 바로 동독의 장벽 안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교회의 강단에서, 비밀결사체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설교와 기도, 글과 토론 그리고 비폭력 시위저항으로 줄기차게 분투해온 동독의 자유민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마무리 지어진 것이었다".

동독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노력은 특히 통일되기 직전 해에 강력하게 표출되었다. 1989년 5월 2일 헝가리가 국경선 철조망을 제거하고 오스트리아

---

80) 서독 정치지도자들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은 걸음의 행보'를 강조했다. 큼직한 명분 보다 작은 실리를 앞세웠던 것이다. 동독과 서독은 처음에 서로가 서로를 단독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서독이 동독을 주권국가로 인정한 후 상호인정, 공존, 공영에 합의했고, 서로 협력했다. 서독은 동독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서 동독 측 국경에 배치된 기관총 철거, 주민들 간 서신교환, 대중매체방송교류, 주민 방문 등의 교류 기회 확대를 요구했다.

81) 동독주민들은 공산주의체재에 절망했고, 제3의 노선을 걸었던 서독사회를 동경했다. 동독의 집권세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전했지만 동독주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통제, 감시, 억압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서독사회는 풍유하고 자유로우며 국민 다수가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했다. 이런 이유에서 동독주민들은 탈출을 시도하거나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결국에는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82) 동독주민들이 동독체재에 절망하고 서독사회에 희망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 분단 이후 부단히 지속되어온 서독과의 접촉과 교류 덕분이었다. 동독주민들은 서독주민들과의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동독정부가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선전했던 서독이 얼마나 풍요롭고 자유로운 사회인지 알게 되었고, 말로만 주권재민을 외쳤던 공산정권의 행태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지속된 접촉과 교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동독과 서독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에 접한 국경을 개방했다. 8월 19일 동독인 900명은 개방된 헝가리-오스트리아 국경을 통해 서독으로 탈출하였다. 10월 4일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1400명의 동독주민이 기차를 타고 동유럽을 빠져나와 서독으로 이주했다. 동독주민의 탈주는 분단 이후부터 계속된 현상이며, 그 규모는 동독정부가 노동력 감소를 우려할 정도였다.

한편 동독주민 7만 여명은 1989년 10월 9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 촛불을 들고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소위 촛불혁명의 도화선이 당겨진 것이다. 반정부시위에 참여하는 동독시민들의 수는 점점 더 늘었고 결국 10월 18일 공산당서기장 호네커가 사임했으며, 11월 7일에는 내각이 총사퇴했다. 다음날인 11월 8일에는 동독 최고의결기구인 정치국의 인사가 모두 개혁파로 교체되고, 개혁파 수장이었던 모드로우가 수상으로 지명되었다. 그리고 11월 9일 동독주민들은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렸다. 11월 10일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시위대의 요구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시위대의 요구사항은 자유선거 실시, 모든 여행규제의 영구철폐, 경제정책의 전환, 보안대에 의한 의회의 감시 등이었다. 긴급하게 돌아가는 동독 상황을 접한 서독 수상 헬무트 콜은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11월 28일 독일과 유럽의 점진적인 분단 극복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동독주민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통일을 열망한다!”고 외쳤으며,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라고 구호를 바꾸고 시위를 계속했다. 결국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최초의 자유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동독주민의 다수는 조속한 통일을 제시한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통일이 기정사실화되었다. 동독의회는 동년 8월 23일 “서독의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10월 3일 서독에 편입”을 결정하였고, 10월 3일 독일통일이 성사되었다.

우리는 이상의 검토를 통해 독일통일의 동력은 통일을 열망했고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동독주민들로부터 나왔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동독주민들이 평화집회를 통해 이룬 민주혁명은 공산당서기장 호네커의 사임과 집권당의 해체를 가져왔고, 동독 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 민주총선거를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조속한 통일을 약속한 정당이 정권을 잡게 함으로써 평화통일이 성사된 것이다.

3) 동독주민을 움직이게 만든 힘의 원천

앞에서 독일통일의 주요 동력은 동독주민들에게서 나왔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움직였을까? 수많은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들어 촛불을 들고 반정부시위를 하도록 만들었으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베를린장벽을 무너뜨림으로써 독일통일이 성사되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만들었을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Epictetos는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말”(코젤렉 라인하르트, 1998: 121)이라고 했다. Epictetos는 2천여 년 전에 이미 말이 인간의 삶과 역사를 구성해내는 원천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인용문에서 말은 현대의 소통 개념을 대신하는 표현이다. 소통은 인간의 생각, 판단, 계획, 실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무엇이, 어떻게 소통되느냐에 따라 인간의 생활이 달라지고, 세상이 변화된다.

그렇다면 소통이 어떻게 생활을 달라지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의미론의 응축을 통해서이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소통, 의미, 의미론의 뜻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통은 의미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소통된 것, 즉 처리된 의미가 남는다. 의미는 “현행성과 잠재성의 차이”(Luhmann, 1997)이다. 의미가 소통을 통해 처리된다는 것은 특정 의미가 현행화되고 그 이외의 의미는 잠재화된다는 말과 같다. 의미가 현행화된다는 것은 의미가 형식을 갖게 된다는 말이다. 즉, 소통을 통해 처리된 의미는 형식을 갖게 되는데, 형식을 갖게 된 의미가 의미형식이다(니클라스 루만, 2016).

의미형식은 소통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출발점이기도 하다. 그것은 후속 소통의 접속 근거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미형식은 후속 소통의 우연성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어지는 소통이 임의적으로 전개되지 못하도록 만든다.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후속 소통은 자신의 출발점인 의미형식을 동요시켜 변경시킬 수도 있고, 더욱 공고(鞏固)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이해를 위해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다.

‘스포츠’의 의미가 아직 잠재적인 매체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은 재미, 경쟁, 난폭함, 땀, 건강, 사망, 규칙, 여우사냥, 올림픽경기, 도핑 등등 역사적으로 누적된 수 없이 많은 의미들과 느슨한 관계를 맺고 있을 따름이다. 스포츠를 주제로 한 소통과정에서 이 의미들 중 어느 하나가 스포츠와 확고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형식이다. 즉, 학술 논문(학문소통)이나 TV보도프로그램(대중매체소통)이 스포츠를 건강의 관점에서 다루고 ‘스포츠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면 건강해진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스포츠’와 느슨한 관계를 맺고 있던 잠재적 상태의 의미들 중 ‘건강’이 현행화됨으로써 ‘스포츠는 건강에 좋다’는 의미형식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의미형식은 후속소통(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 마라톤경기에 참가했던 한 중년 남성이 경기도중 사망했다는 보도기사)을 통해 동요될 수 있으며, 이 후속소통을 지지하는 또 다른 후속소통을 통해 ‘스포츠는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미형식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망한 중년남성의 사인은 마라톤 때문이 아니라 지병 때문’이라는 보도나 ‘운동 중 사망사고는 예외일 뿐이며 오히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병 없이 오래 산다.’는 학술발표(후속소통)는 ‘스포츠는 건강에 좋다’는 처음의 의미형식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소통이 후속 소통을 통해 계속 이어지면서 특정 의미형식이 반복되고 이를 통해 그 형식이 더욱 공고해질 때, 이 의미형식은 유사 맥락에서 상황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의미론(semantics)이라고 부른다(Luhmann, 1997). 예컨대 ‘스포츠는 건강에 좋다’는 말이 책을 통해, 논문을 통해, 대중매체의 보도프로그램을 통해, 길거리 홍보현수막을 통해, 일상적 대화를 통해 계속 반복되어 사회구성원 다수에게 마치 진리처럼 인식될 때 스포츠의 건강의미론이 응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의미론은 대개 사회구성원 다수의 의식에 깊게 각인되며, 행위 동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주말에 강변을 달리고, 퇴근 후에 동네 헬스장을 방문하고, 친구들과 더불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들의 의식에 각인된 ‘스포츠는 건강에 좋다’는 의미론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건강에 좋다’는 의미론은 마치 진리처럼 간주되며, 후속 소통을 통

해 여러 차례 도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한 행위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결과는 스포츠건강의미론이 얼마나 강력한 행위동인으로 작용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동독주민들로 하여금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 시위하게 만들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게 만든 것도 결국은 그들의 의식을 지배했던 의미론이었다. 나는 이 의미론을 희망적 통일의미론으로 부르고자 한다. 통일의미론은 '통일'하면 사회구성원 다수의 의식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공통적 의미형식, 다수에게 진리처럼 간주되는 의미내용을 뜻한다. 통일 전 동독주민들이 갖고 있던 통일의미론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구태여 경험적으로 연구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강력한 비전과 희망을 담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토록 큰 위험을 무릅쓰고 통일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이 감시받고 통제받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들은 마음대로 여행도 하지 못했고,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지도 못했으며, 비밀경찰 슈타지의 감시와 통제를 받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지 못했다. 반면에 서독 사회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서독에서는 개인에게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며, 국민 다수가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고,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동독주민들은 동독에서의 삶에 대한 절망과 서독에서의 삶에 대한 희망 사이의 간격이 통일을 통해 메워질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이상이 발표자가 생각하는 희망적 통일의미론의 개요이다.

그렇다면 다수 동독주민의 의식에 깊게 각인된 희망적 통일의미론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통일의미론은 동독사회와 서독사회의 차이를 생산해낸 소통과정으로서 동서독교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동독과 서독은 분단이 시작된 1940년대 말부터 통일이 성사된 1990년까지 40여 년 동안 끊이지 않고 접촉하고 교류했다. 교류는 1960년대 초 동독 정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세워진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1960년대 말 빌리 브란트가 집권하고 신

동방정책을 표방하면서 재개되었다.

동서독교류는 정부 및 관련부처가 주도적으로 계획한 연간 일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 친지 방문, 국경지역 주민회동 같이 민간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도 이루어지기도 했다. 관주도의 교류보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훨씬 빈번하게 그리고 훨씬 큰 규모로 이루어졌다. 동서독주민들은 서로 간 서신 왕래, 라디오 청취, TV 시청, 친지 방문, 연간 1개월 이내 체류, 자동차 여행 등과 같은 교류가 가능했다.

동독주민들은 계속해서 이어져온 교류를 통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독사회와 국경 너머의 서독사회를 비교할 수 있었고, 양측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으며, 동독체재에 불만을 갖게 되었고, 서독에서의 삶을 동경하게 되었으며, 자신과 자손의 삶이 통일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교류를 통해 희망적 통일의미론이 응축되고 의식에 깊이 각인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론에 영향을 받은 동독주민 중 일부는 서독 방문 후 돌아오지 않았고, 일부는 장벽을 넘거나 체코와 헝가리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으며, 남아있는 자들은 정치개력을 요구하며 반정부시위에 가담했다. 결국 이들의 노력으로 공산당서기장이 사임했고, 동독 내각이 총사퇴했으며, 동독 최초이자 최후의 민주총선거가 치러졌다. 동독주민들은 선거를 통해 조속한 통일을 약속한 정당을 선출하였으며, 이로써 통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만일 동서독 간에 교류가 없었거나, 극히 제한된 교류만이 허용되었거나, 교류가 지속되지 않았다면 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서독을 동경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통일을 통해 절망적인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도 않았을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희망적 통일의미론의 형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서독의 지속적 교류는 희망적 통일의미론 형성의 필수적 전제였다고 볼 수 있다. 희망적 통일의미론은 1940년대 말부터 1980년대 말까지 40년 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되어온 동서독 교류과정에서 응축된 것이다.

4) 스포츠교류의 독일통일에 대한 기여 가능성

동서독스포츠교류는 독일통일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답하기 위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 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독일통일은 동독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고 했고(2장), 동독주민들이 통일을 위해 노력하게 만든 것은 40여 년 동안 부단히 지속된 동서독교류과정에서 튼실하게 응축된 희망적 통일의미론이라고 했다(3장).

동서독스포츠교류는 희망적 통일의미론 응축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동서독주민들의 교류를 반복적으로 지속시켜줌으로써 독일통일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간에 이루어진 모든 스포츠교류가 독일통일에 기여한 것은 아니다. 스포츠교류에 권력지향적인 정치 코드가 개입될 경우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스포츠교류가 독일통일에 기여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몇몇 학자들은 동서독스포츠교류가 독일통일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거나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고 말하고, 다른 학자들은 동서독스포츠교류가 독일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한다. 엇갈리는 두 입장이 동일하게 스포츠교류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스포츠교류는 각기 다른 코드에 의해 지휘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동서독의 스포츠교류는 정치 코드에 의해 지휘된 엘리트스포츠교류와 스포츠 고유 코드에 의해 지휘된 대중스포츠교류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주로 동독이 주도했던 엘리트스포츠교류는 통일에 부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은 반면에 서독이 주도했던 대중스포츠교류는 통일에 긍정적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먼저 부정적 견해에 대해 알아보자.

이학래 등은 통일부 용역연구결과보고서 「동서독 체육교류 사례 및 시사점」에서 “통독에 있어서 동서독의 스포츠교류가 기여한 바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이학래 외, 2001: 56)고 썼다. 주독 한국대사관이 기고한 글은 더 강한 어조로 “스포츠(교류)는 줄곧 서독에 대한 동독의 동서독 분리정책의 일환에 불과”(1994: 96)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스포츠교류가 분단의 극복보다는 오히려 고착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스포츠교류가 분단의 고착화에 기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동독주도의 스포츠교류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SED)은 동서독관계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 대립의 일부로 파악했고, 스포츠를 항상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동독 주도의 스포츠교류가 정치색을 강하게 띨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동독의 스포츠가 정치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스포츠는 조직편제, 임원구성, 재정마련에 있어서 철저하게 정치에 종속되어 있었다. 동독스포츠를 대표하는 특기종목스포츠 중앙위원회는 동독 공산당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독일체조스포츠연맹의 직속 상부기관이기도 했다. 스포츠관련부서의 요직을 맡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 당 및 국가의 고위직을 겸하고 있던 공산당 당원이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큰 어려움 없이 스포츠업무에 자신들의 의지를 반영시킬 수 있었다. 스포츠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재정은 국고와 사회 각계의 기금으로부터 염출되었다. 한편 교류를 위해 선정된 스포츠종목은 대개 국제대회에서 메달 획득이 용이한 종목이었다. 이 종목들이 자신들의 체재우월성 선전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역사가들은 스포츠가 독일 통일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독체조스포츠연맹이 철저하게 ‘동독 사회주의 스포츠조직은 …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적 세계주의를 교육하기 위해 헌신한다.’는 정관에 따라 처신했기 때문입니다.”(Fischer, 1992: 251).

동독이 주도한 스포츠교류는 스포츠 고유의 의미처리과정에 정치의 의미처리과정을 덧씌움으로써 분단의 극복보다는 고착화에 기여했다. 동독정부가 스포츠교류를 추진했던 이유는 스포츠적 성과를 통해 국제적 인정을 얻고, 우월성을 과시함으로써 동독 내 집권체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동독정부는 대표 선수나 팀이 국제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스포츠행사에 사회주의체재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연설을 포함시켰고, 회동에 참가한 서독 선수단에게 각종 선전물과

선물을 제공했으며, 국제대회에서 서독과는 다른 동독만의 국기(삼색기에 망치, 컴퍼스, 이삭 그림이 삽입)를 사용했고, 대표선수들의 우승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도핑을 감행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1956년부터 1988년까지 동독선수들은 올림픽경기에서만 모두 578개의 메달을 획득했는데, 이중 203개가 금메달이었다. 결국 이러한 조처로 인해 스포츠교류는 동서독선수들 간에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을 만들어냈고, 국제적 인정을 통해 집권체재를 안정화시켜줌으로써 분단의 극복보다는 고착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피셔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당시에 동독과 함께 사회주의통일당 체제에 특화된 스포츠가 있었습니다. 이 스포츠는 스스로를 올림픽 운동의 산실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실제로는 이 독일 최초의 노동자 및 농부 권력(동독 공산주의 체제)의 위신과 성공을 지향하는 자신들만의 규칙들을 만들었고 이를 위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망치(노동자를 상징)와 컴퍼스(창조적인 지식인을 상징) 아래서 이루어낸 성공은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IOC위원장은 이와 같은 세계스포츠의 사례에 명예의 깃발과 최고의 올림픽 훈장을 수여했고, 많은 다른 국가들은 이 나라의 사례를 모방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중앙집권적 체제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에 대한 모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독일스포츠연맹 역시 그러한 유혹에 일시적으로 압도되었었습니다. … 자율성 없이 오직 승리만을 위하고,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스포츠, 정치적으로 방향을 잡은 스포츠는 통일된 독일에서 발을 디딜 자리가 없습니다."(Fischer, 1992: 250).

이상의 검토를 통해 동독이 주도했던 엘리트스포츠교류가 왜 독일통일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근본적인 이유는 스포츠와 정치의 유착에 있었다.

다음으로 동서독스포츠교류가 독일통일에 기여했다는 긍정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기서 말하는 스포츠교류는 서독에 의해 주도된 대중스포츠교류이다. 서독에서 스포츠교류의 주도권은 민간단체인 독일스포츠연맹이 쥐고 있었다. 독일스포츠연맹은 자율성이 보장된 독립된 조직이다. 따라서 철저하게 정

치로부터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서독정부가 동독과의 모든 교류를 금지하라고 권고했던 때에도 독일스포츠연맹은 동독과의 스포츠교류를 계속해서 이어갔다. 서독의 스포츠조직이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행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나치시대의 부정적 경험 덕분이다. 나치는 스포츠를 국가의 지배하에 두었으며, 국가주의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이와 같은 부정적 경험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스포츠 관련 공식 단체들은 모두 강제로 해체되고 재조직되었다. 새롭게 조직된 공식 스포츠조직들은 철저하게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유지했다. 스포츠 관련 협회와 연맹의 임원진들은 모두 비정치적인 인물들로 채워졌다. 스포츠조직들은 운영예산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서독주도의 스포츠교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에 기여할 수 있었을까? 스포츠교류는 경쟁, 재미, 친교 같은 의미론에 근거하여 다른 교류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독일통일에 기여했다. 분단국가의 이산가족 상봉은 당사자나 관찰자 모두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다. 그러나 그것도 반복되면 현실적인 문제가 개입되어 거부감이 생겨날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점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스포츠교류는 이렇듯 반복될 경우 자칫 지루해지고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인적 교류에 활기를 불어넣어줌으로써 그것이 지속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스포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경쟁적 상황이 참가자와 관람자 모두에게 소소한 재미를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후속 교류의 필요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스포츠는 소통체계이다. 체계는 자기지시적으로 자기를 생산하는 작동의 연쇄이다. 체계의 자기생산 운동으로서 작동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체계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선행 작동에 후속 작동이 연결되어야만 한다.[83] 작동이 후속 작동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양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 스포츠작동의 연결매체는 성과비교이다.

스포츠작동은 달리기, 던지기, (공)차기 같이 신체 능력(성과)을 추론케 하

83) 유기체(생명체계)는 생명(작동)에 후속 생명이 연결됨으로써 존속될 수 있고, 심리체계는 생각(작동)에 후속 생각이 연결됨으로써 존속될 수 있으며, 사회(소통체계)는 소통(작동)에 후속 소통이 연결됨으로써 존속될 수 있다.

는 신체 행위이다.[84] 스포츠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행위(스포츠작동)는 관련된 신체 능력을 추론하게 해주는 일종의 성과로 해석된다. 신체 행위가 성과로 해석된다는 것은 신체 행위의 수많은 성질과 동기가 추상화된다는 것을 함축한다. 즉, 신체 행위를 특정하게 측정 가능한 특성과 효과들로 감축시켜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신체 행위는 성과로 그 의미가 감축됨으로써 다른 신체 행위와 비교가 가능하게 되고,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송형석, 오창우, 2018).

100m달리기는 "나는 이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정보의 통보(의미 제안)이다. 우월한 성과/열등한 성과(스포츠의 주도 코드)라는 의미 지평 내에서 한 선수는 100m달리기라는 신체 행위(통보)를 통해 자신의 성과가 우월하다는 점(정보)을 통보한다. 사실 100m달리기(신체 행위) 자체는 느슨한 관계로 구성된 의미매체이다. 그것은 도망침, 추적함, 바쁨, 훈련, 존경의 표현(고대 의례행사에서 신이나 사망한 전사에 대한), 우월성과시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과 연결될 가능성을 갖는다. 그러나 육상경기(스포츠)의 맥락에서 이 신체 행위는 우열을 가름하는 성과(의미형식)로 해석된다. 즉, 풍부한 의미연관을 갖는 신체 행위(의미매체)가 신체 능력을 추론케 하는 성과(의미형식)로 의미가 감축됨으로써 이전 성과들과 비교가능해지고, 이후 시도될 성과들과 연결가능하게 된다. 다르게 말해 기대했던 성과와 실제 이룬 성과 간의 차이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 비교가능성 생겨나고, 이 행위는 성과 유발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통보행위로서 이후에 이루어질 선수 자신 또는 다른 선수들의 연결 행위를 장려하고 촉진시켜준다. 성과의 통보 행위가 연결 행위를 장려하고 촉진시켜주는 이유는 스포츠행위를 실행한 자(타자)의 의미제안, 즉 스포츠에서 길이(cm)•무게(kg)•시간(sec)으로 표현된 성과의 사안적 차이는 후속 스포츠행위를 실행할 자(자아: 다른 선수이거나 이전에 타자역할을 담당했던 선수 자신이 될 수도 있음)에 의해 기대된 성과 차이와 비교되어 사회적 차이로 바뀌고, 이를 통해 경쟁심이 자극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84) 스포츠작동이 신체 운동이 아니라 신체 행위인 이유는 줄다리기나 역도 같은 종목에서처럼 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적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신체 능력(성과)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스포츠작동을 신체 운동에 한정한다면 정적 신체 행위로 이루어진 활동은 운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스포츠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그렇지만 역도, 사격, 양궁은 분명 스포츠이다. 따라서 스포츠작동은 신체 운동이 아니라 신체 행위라고 해야 한다.

스포츠에서 1m 멀리 던짐 또는 0.1초 빨리 뜀 같은 사안적 차이는 성과비교를 통해 1등이나 2등 같은 사회적 차이(서열)로 바뀌고, 서열화는 관련자들의 경쟁심을 자극하여 연결 행위를 촉진시켜준다(Schimank,1988; Stichweh, 1990).

현대 사회는 평등 이념의 확산에 따라 계층과 서열이 비-가시화되는 사회이다. 스포츠는 사안적 차이를 사회적 차이로 바꿔줌으로써 계층화와 서열화를 가시화시켜준다. 스포츠를 통해 가시화된 서열화는 높은 상징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경쟁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회집단들, 개인들의 우열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기능을 한다. 서열화를 가시화시켜주는 스포츠의 기능은 앞에서 언급한 동독 주도의 엘리트스포츠교류 사례에서처럼 권력창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서독이 주도한 대중스포츠교류에서처럼 개인 간의 친분형성 및 교류지속의 계기로 활용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소통체계로서 스포츠가 어떻게 고유한 방식으로 의미를 처리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접촉과 교류를 지속시켜줄 수 있는지 알게 되었다. 스포츠는 경쟁과 재미라는 고유 의미론의 생성을 통해 연결행위를 장려하는 소통체계이며, 그런 이유에서 자주 사회통합기제로 활용된다. 경쟁과 재미를 동반하는 스포츠교류는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동서독주민들 간의 기타 인적 교류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촉진된 기타 인적 교류들은 부대행사의 성격을 지닌 스포츠교류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주었다. 이러한 상호촉진과정을 통해 동서독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렇게 스포츠교류는 동서독주민들의 교류를 촉진시켜줌으로써 독일통일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독일통일경험이 남북스포츠교류의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

독일의 통일경험은 남북스포츠교류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앞의 논의에서 독일통일의 동력이 동독주민들에게 나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남북통일의 동력도 북한주민들로부터 나와야만 한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남한과의 평화통일을 열망하고 통일의 실현을 위해 힘써 노력할 때 통일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한편 북한주민들이 통일을 열망하고 통일의 실현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희망적 통일의미론이 응축되고 확산되어야만 한다. 희망적 통일의미론만이 그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한을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일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남북한이 다양한 차원,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독일의 통일경험이 남북스포츠교류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은 한 마디로 "다양한 차원, 다양한 방식의 남북교류를 지속시켜라!"는 말과 같다. 교류 없이는 소통이 어렵고, 소통이 어려우면 의미론의 응축이 불가능하다. 교류가 단발성으로 끝나도 의미론의 응축이 어렵다. 의미론은 반복적 소통을 통해서만 응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교류의 지속은 스포츠교류가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가 된다.

동서독스포츠교류 경험은 교류의 지속이라는 목표의 성공적 달성과 관련하여 남북스포츠교류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독일이 주는 교훈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스포츠교류를 스포츠교류로서 지속하라!"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포츠교류를 스포츠교류로서 지속하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 말은 스포츠교류에서 스포츠 고유의 의미처리과정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앞에서 스포츠는 고유한 방식으로 의미를 처리하는 소통체계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재미, 친교 같은 스포츠 고유의 의미형식들이 생겨나며, 이것들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의 접촉과 교류를 지속시켜주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독일의 경험은 이와 같은 스포츠 고유의 의미처리과정에 다른 의미처리과정, 예컨대 정치의 의미처리과정이 덧씌워질 경우에 스포츠교류는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분단의 극복 보다는 오히려 고착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발표자는 "스포츠교류를 지속하라!"라고 하지 않고 "스포츠교류를 스포츠교류로서 지속하라!"라고 말했다.

한편 교류의 지속과 관련하여 교류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채널의 다양화는 교류 자체를 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줌으로써 교류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다. 채널이 단선적일 경우에 교류를 둘러싼 주변 분위기, 예컨대 정치적 분위기가 냉각되면 교류도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채널이 다양화됨으로써 서로 독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교류들이 공존할 경우에 외부환경이 호의적이지 않게 변화하더라도 교류는 지속될 수 있다. 사이버네틱스학자 에쉬비는 이것을 “필수적 다양성의 법칙”으로 설명했다. 이 법칙은 다양성을 갖춘 복잡 체계가 그렇지 못한 단순 체계 보다 존속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잘 설명해 준다. 교류를 하나의 체계로 간주한다면 교류채널의 다양화는 체계의 다양성을 높이는 일에 해당된다. 스포츠교류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 교류채널을 다양화해야만 한다.

이상의 시사점들은 선행연구들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송형석과 안민석(1998: 79-97)은 동서독스포츠교류를 분석한 후 남북한스포츠교류가 독일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정치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만 한다. 둘째, 풍부한 교류경험을 축적해야만 한다. 셋째, 교류채널을 다양화해야만 한다. 넷째, 교류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학래(통일부, 2001)도 남북스포츠교류와 관련하여 네 가지 지침을 제안했다. 첫째, 정치의 영향을 최소화해야만 한다. 둘째, 스포츠가 체제우월성의 경쟁수단으로 오용될 수 없게 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엘리트스포츠 위주의 교류에서 탈피해야만 한다. 넷째,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한 일반주민의 스포츠교류 같이 대중스포츠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김미숙(체육과학연구원, 2012)도 남북한스포츠교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 지침을 제안했다. 첫째, 서독의 신동방정책 같은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완화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 둘째, 탈정치화를 통해 스포츠가치 및 스포츠교류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해야한다. 셋째, 스포츠교류 주체를 다양화하고,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야한다. 넷째, 정치로부터 독립된 교류 주체 지원 기관을 확보해야한다. 다섯째, 스포츠교류 규범 및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여섯째, 스포츠교류 활성화를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만 한다. 일곱째, 연간 및 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만 한다. 여덟째, 청소년층 스포츠

교류를 확산시켜야 한다.

이상에서 소개한 선행연구의 제안사항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스포츠교류를 스포츠교류로서 지속하라!”는 발표자의 결론과 동일하다. 스포츠교류에서 스포츠 고유의 의미처리과정이 보장되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교류과정이 정치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정치색이 짙은 엘리트스포츠교류 보다 순수하게 재미, 친교, 건강을 위해 참가하는 대중스포츠교류를 제안하고 있다. 교류채널 다양화, 교류경험 축적, 교류 제도화, 교류 재원, 장단기 교류계획 등 나머지 제안사항들은 모두 교류가 지속되기 위한 조건들과 관련이 있다.

글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할 것이 있다. 독일의 교류경험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두 나라의 교류 조건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동서독이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았지만 우리의 경우 남북한이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그 이유를 전쟁 유무, 경제 상황, 분단 원인, 접촉과 교류, 지리적 조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성장환, 2015).

첫째, 동서독 간에는 전쟁이 없었지만 남북한 간에는 전쟁이 있었다. 이 차이는 서로 분단된 두 나라 주민들 상호간의 감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동서독주민들은 서로 미워하지 않지만 남북한주민들 간에는 여전히 증오의 감정이 남아있다. 증오심은 교류를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이다.

둘째,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양호했다. 동독은 동구권 국가 중에서 상위의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서독 역시 세계 3, 4위의 경제 대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재정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세계 최빈국(1인당 국민소득 하위 10% 수준)의 위치에 있으며, 남한은 경제력에 있어서 세계 10위권 정도이다. 엄청난 통일비용은 통일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셋째, 독일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에 전승 4대 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분할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미국이 지지하는 세력과 소련이 지지하는 세력이 각각 남과 북을 점령함으로써 분단되었다는 점에서 분단이 자의반 타의 반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외부세력에 의한 강제적 분단은

분단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자의 반 타의 반의 분단은 분단에 대한 저항감을 그렇게 강력하게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넷째, 독일은 분단 후 통일되기까지 40여 년 동안 접촉과 교류를 지속해왔음에 비해 한국은 분단 이후 1990년대까지 50년 동안 단절하고 살아왔다. 1990년대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 햇볕정책을 폄으로써 경제교류, 관광, 스포츠교류 등 접촉과 교류를 시작했지만 정권이 바뀌면 다시 교류가 중단되었다. 현재는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제재조치의 여파로 남북교류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다섯째, 독일의 경우 서베를린이 동독 영토 한가운데 있었고, 서베를린 시민들은 동베를린 지역의 자유로운 왕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따라서 동서독은 어쩔 수 없이 서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지리적 조건을 고려할 때 협상할 사안이 없었으므로 서로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지 않는 한 접촉이나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상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교류여건의 차이는 독일의 교류경험을 한국 상황에 직접 대입하는 일을 조심스럽게 만든다.

참고문헌

김미숙(2012). 남북체육교류 활성화 방안: 통일 독일 스포츠교류를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원.

김영탁(1997).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서울: 한울아카데미.

니클라스 루만(2016). 『체계이론 입문』(윤재왕 역). 새물결.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국민생활체육 참여실태 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성창환(2015). 독일통일 사례가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 초등도덕교육, 제50집, 137-164.

손기웅(2010). 독일통일 20주년에 비추어본 한반도 통일의 과제와 전망. JPI(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No. 2010-27, 1-15.

송형석, 안민석(1998). 동서독스포츠교류가 독일통일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1호, 79-97.

송형석, 오창우(2018). 니클라스 루만의 분화이론의 본 사회의 기능체계로서 스포츠.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26(4), 7-19.

양영식, 김경웅(1991). 독일통일을 전후한 문화교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의 시사점. 문화정책논총, 3권, 11-41.

양창석(2011). 독일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JPI(제주평화연구원) 정책포럼, No. 2011-18, 1-15.

이학래 외(2001). 통일부 용역보고서: 동서독 체육교류 사례 및 시사점. 통일부.

정용길(2013) 독일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관계와 남북관계에의 시사점. 저스티스, 제134호, 466-482.

주독 한국대사관(1994). 독일통일연구: 스포츠 교류. 통일한국, Vol. 129, 96-100.

중앙일보(2019년 10월 2일)

코젤렉 라인하르트(1998). 『지나간 미래』(한철 역). 문학동네.

한관수, 김재홍(2012). 분단국 통일의 결정요인 분석: 독일과 한반도 사례를 중심으로. 국방연구, 55(1), 1-24.

헌법 제4조

Fischer, H. M.(1992). The West-East Sports Exchanges Influence on Reunifying Germany. 남북체육교류 국제학술대회보고서 - 분단국에 있어 체육교류의 정치·사회적 기능 -, pp. 204-252.

Luhmann, N.(1997).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 a. M.: suhrkamp.

Schimank, U.(1988). Die Entwicklung des Sports zum gesellschaftlichen Teilsystem. In R. Mayntz/B. Rosewitz/U. Schimank/R. Stichweh (Hg.), 『Differenzierung und Verselbständigung: zur Entwicklung gesellschaftlicher Teilsysteme』. Frankfurt a. M.; NY: Campus, S. 181-232.

Stichweh, R.(1990). Sport - Ausdifferenzierung, Funktion, Code. Sportwissenschaft 20, S. 373-389.

6. ‘독일 통일 경험이 남북스포츠교류의 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토론[85]

권순용 교수(서울대학교)

본 토론문은 먼저 발제원고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한 후 토론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발제자는 독일통일 경험이 남북스포츠교류 방향설정에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 독일통일은 동독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결과이며, 둘째, 동독주민들의 열정과 노력은 동서독교류과정에서 응축된 희망적 통일의미론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으며, 셋째, 스포츠교류는 동서독의 지속적인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독일통일에 기여했으며, 넷째, 남북스포츠교류가 남북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스포츠교류가 스포츠교류로서 지속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발제문에 따르면 독일통일의 다섯 가지 요인으로 (1) 서독의 국력, (2) 동구권 몰락 등 국제정세 변화와 국제사회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낸 서독의 외교력, (3) 통일을 철저하게 준비해 온 서독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 (4) 동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강한 열망과 노력, (5) 동서독 주민 간 지속적인 공식, 비공식 교류 등으로 정리될 수 있으며, 가장 결정적이고 실질적인 원동력으로 네 번째 요인인 동독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동독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노력을 가능하게 한 힘의 원천, 즉, 행위동인은 특정한 방식으로 반복되면서 공통적으로 형성되고 응축된‘희망적 통일의미론’에 기인하였으며, 그러한 희망적 통일의미론은 동서독교류의 소통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공식적, 비공식적 다양한 방식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진 동서독의 지속적 교류는 희망적 통일의미론의 형성의 필수적 전제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

85) 먼저 본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가하게 되어 무척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특히 독일통일 경험과 남북스포츠교류 방향설정에 대한 송형석 교수님의 명료한 분석과 심도 있는 성찰의 원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서독 스포츠교류는 동서독 주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는 주요 경로로 기능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희망적 통일의미론 형성에 기여하였지만, 특정한 정치적 코드에 따른 상이한 결과 — 오히려 분단의 고착화 — 를 가져왔기 때문에 스포츠교류-독일통일 관계에 대한 단순한 의미론적 결론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스포츠교류와 독일통일의 관계에 대한 견해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계의 극단적인 분석으로 엇갈리고 있으며, 대체로 동독이 주도한 엘리트스포츠교류는 통일에 부정적 평가가 많은 반면, 서독이 주도한 대중스포츠교류는 긍정적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에 발제자는 동서독 스포츠교류 성과의 결정적 차이를 스포츠와 정치의 유착 여부와 엘리트스포츠교류보다 대중스포츠교류 효용성 결과로 읽어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남북스포츠교류가 희망적 통일의미론을 응축하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탈정치성, 다양성, 그리고 지속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차원, 다양한 방식의 남북교류를 지속시켜라!"는 표어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발제자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개념도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탈정치성과 다양성을 전제하는 남북스포츠교류 지속가능성 → 북한주민의 희망적 통일의미론 확장과 응축 → 북한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노력 → 남북통일 가능성

이상 발제자의 체계적 분석과 성찰적 논의에 적극 동의하면서 몇 가지 각론적 차원의 논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86]

첫째, 북한주민 주도의 통일의미론 형성과 확산도 중요하지만,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남북분단 상황과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동북아를 둘러싼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 등으로 남한주민들의 통일의미론 정도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희망적 통일의미론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동의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86) 발제 주제가 독일통일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라는 점에서 독일통일 사례에 근거한 시사점 논의범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는 동서독 맥락과 구별되는 남북스포츠교류의 맥락을 적극 반영하는 차원에서 토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

둘째, 발제에서도 강조되듯이 남북통일을 고정적 달성점이나 특정 시점에서 발현되는 사건이나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 보고 단계적 접근의 원칙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각 단계별 남북스포츠교류의 필요성과 의미, 접근방식과 전략, 실질적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따라서 현 단계 남북스포츠교류는 남북통일이라는 결과물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적 단일의미보다 남북한 상호신뢰를 형성하고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그동안 남북스포츠교류에서 강조되어온 민족동질성 회복의 전제를 보다 상호이익에 기반을 둔 신뢰형성과 같은 다양하고 유기적인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발제자가 제시한 교류-소통-의미의 도식을 통한 신뢰형성 기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스포츠교류의 탈정치화, 즉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원칙에 적극 동의하지만, 정치·외교적 차원의 남북스포츠교류 자체의 의미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스포츠의 정치·외교 도구적 유용성은 그 동안 국제정치 무대의 다양한 사례에서 제시된 바, 부정적 차원의 정치적 수단화는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대결구도 긴장완화, 상호이익 증진 등의 차원에서 정치·외교적 도구적 유용성은 극대화될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스포츠학자가 동서독 스포츠통합과정을 살펴본 뒤, 통일 이후 남북스포츠통합의 길을 제시했다. 전문가 6명의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동독 인구의 38%만이 독일 통일을 성공적으로 평가하였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동서독 스포츠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진 탓에, 통일 독일 이후, 동독의 엘리트 스포츠 중심 체제와 서독의 생활체육 중심 체제의 차이, 스포츠 전공 교수 중 동독인 비율이 현저히 적은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남북한은 앞선 독일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통일 이후 스포츠통합에서 일어날 문제들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준비 없이 진행된 동서독의 스포츠통합은 동등한 조건에서 온전한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였기에 사회 전반에도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였다. 남북한은 이를 타산지석으로 교훈 삼아 남북통일 이후 스포츠통합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북한 스포츠는 사회주의 이념과 정치로 철저히 통제되고 있기에 스포츠를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및 친선강화 즉 감정공통체의 의미만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관해 북한 입장에산 남한 방식의 자본주의 스포츠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동등한 조건에서 남북스포츠의 장단점과 문화를 이해한 상태에서 최적의 스포츠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셋째, 독일이 통일된 후 올림픽 교육을 통한 독일 젊은이들의 통일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대한 노력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국제 올림픽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다가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남북한 학교 간 스포츠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남북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통일된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넷째, 과거의 남북스포츠교류는 단발성 행사로 끝났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었기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남북스포츠교류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정치적 도구가 아닌 스포츠 그 자체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남북의 신뢰를 구축하고 남북의 이

익과 공동발전을 위한 남북 스포츠통합제도와 시스템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이 협력해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를 추진한다면 세계인들 역시 공감을 할 것이다.

다섯째, 기존에 남북스포츠교류는 축구, 농구, 태권도, 하키 등 일부 종목에 국한해서 대회가 진행됐다. 향후 남북평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교류가 전개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스포츠교류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 설립 및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이 뿐만 아니라, 스포츠교류 지원사업(남북공동훈련,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연구 교류협력, 씨름 등의 전통무예 보존과 복원 협력, 지역별 전통놀이 자매결연, 생활체육 교류협력 등)의 다양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스포츠교류와 관련하여 기존의 행위자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킹이 가능한 혁신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

여섯째, 스포츠 고유의 의미처리 과정이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 재미, 친교와 같은 의미형식들이 생겨나며, 이것이 교류를 지속시켜준다. 독일의 경험은 스포츠교류가 정치적 목적 달성 수단으로 이용될 때 분단의 극복보다는 고착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스포츠교류는 정치로부터의 독립성 원칙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스포츠를 통해 긴장완화와 상호이익 증진 등의 차원에서 정치, 외교 도구적 유용성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학술대회 좌장을 맡은 임현진(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은 토론자 6명의 발표에 대해 정리와 논평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먼저, 하웅용 교수의 토론에 대해선 '젊은이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그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듯 하다'고 평했다. 이어 우도 뫼닉 교수의 토론에선 '스포츠와 정치의 역학관계를 한반도 정치와 남북태권도 교류라는 구체적인 예시로 잘 설명했다'고 하였다. 안지호 연구위원의 토론에선 '1975년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체결한 협약(군사훈련 시 사전에 통보, 스포츠 교류 협정 등)으로 인해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고, 이것이 기반이 되어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남북 역시 이러한 계획을 장기간에 걸쳐 고려해야 한

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평했다. 한편, 임현진 교수는 ‘오늘날 북한 사회에서 스포츠의 역할은 당의 우월성을 확인하는 도구로 변질되어 통일을 위한 남북스포츠교류에 대해 한 번쯤은 재고해야 한다’는 전종덕 박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권순용 교수와 최의창 교수의 토론에 대해선 ‘스포츠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한 규칙(Rule)의 중요성을 참여자에게 자연스레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신뢰 구축에 큰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이번 학술대회를 총평하며, 남북 간 정치·경제 영역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마음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비정치적인 분야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포츠는 남북 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기대를 걸 수 있는 분야라며, 2019년 남북정세가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듯 보이지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고 과거 동서독이 통일하는 과정을 바라보고 스포츠의 순기능을 통해 지금의 난관을 헤쳐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본 연구를 통해 동서독 스포츠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 이후 남북스포츠 통합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스포츠통합의 사례를 동서독과 남북한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회주의 체제라는 우산 아래 동독과 북한의 스포츠정책이 구소련의 스포츠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남한의 스포츠정책과 서독의 스포츠정책은 학교스포츠와 생활스포츠 그리고 엘리트스포츠의 발전과정에서 차이가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라는 우산 아래에서 발전하였기에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많다. 이에 남북한은 독일 통일 이후 스포츠통합과정을 살펴보는 작업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이며, 동서독 스포츠통합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명하여 한반도 통일 이후 원활한 스포츠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